전북회화

2017년 통권 제24호 전북회화회발행
Chonbuk Painting Association, Number 24. 2017.
http://cafe.daum.net/artjb

전북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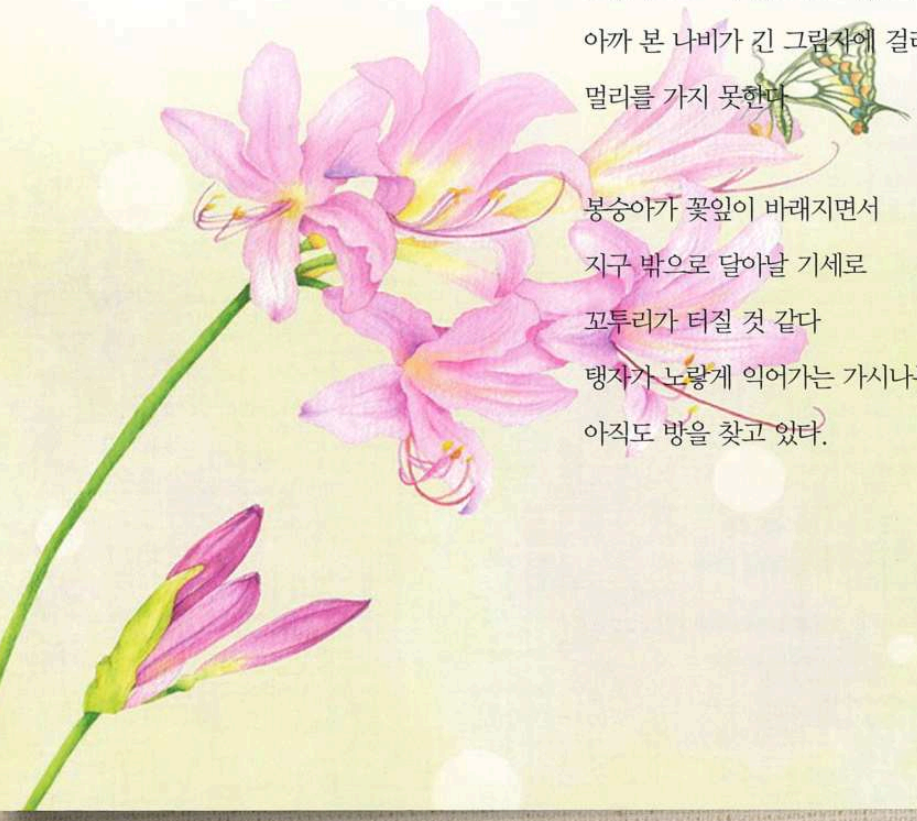
여름 모퉁이

이 승 훈

서리 내릴 준비는 하늘에 가득하고
기침 같은 바람은 조석으로 심해진다
호랑나비 한 마리 얼마나 헤맸으면
날개 끝이 부러졌을까?
끝물 가는 붉노랑상사화 위에서 바삐 난다

한 종발 햇빛이 남아 항아리 뚜껑을 열어놓았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조용히 스며든다
고양이도 그 시간을 졸고 있는데
아까 본 나비가 긴 그림자에 걸려서
멀리를 가지 못한다

봉숭아가 꽃잎이 바래지면서
지구 밖으로 달아날 기세로
꼬투리가 터질 것 같다
탱자가 노랗게 익어가는 가시나무에서
아직도 방을 찾고 있다.





이 승 훈

• 아이올리브 전국인터넷 백일장 차하 / 벚꽃 전북백일장 장원 / 가람기조백일장 차상 / 마한문학상 수상
• 익산문협 부지부장, 지평선 동인, 전북작가회, 군산대성중학교 교장
• 시집 : 〈빈들의 소곡〉 신아출판사 출판, 〈달개비 꽃 하늘〉 대한북스 출판 • 미술문화컬럼집 : 〈감성 그 시간 속으로〉 맵시터 출판
• 주소 : 익산시 배산로 91-9, 303동 607호 (모현3차 현대아파트) • 메일주소 : misege@hanmail.net / 010-4115-0577

이천십칠년 12월

제24호

전북회화회

CHONBUK PAINTING

● 전북 회화회는 한국화를 전공하고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작가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작품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 되었으며, 전북 회화회지 발간을 통해 지역 예술활동의 질을 높히고 한국화에 대한 저변확대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 전.북.회.화.회.발.자.취



1990. 3. 13 전북회화회 창립
1990. 5. 31~6. 13 중앙시장 사람들展-얼화랑-주제전
1991. 1. 4~5 스케치여행:해남 대흥사
1991. 3. 9~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1. 6. 8~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1991. 6. 15 전북의 산하展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1. 8. 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아콘도
주제:"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하여-F.B.Feildman저, 김춘일 역(사화:이철량)
1992. 6. 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992. 12. 1~7 교동의 표정展-얼화랑-주제전
1993. 5. 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공간-정기전
1993. 5. 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3. 8. 하계 스케치여행:군산 개야도
1993. 9. 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주제전
1993. 제1호 전북회화지 발행(창간호)
1994. 2. 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환영MT(회문산 자연휴양림)
1994. 6. 15~21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4. 7. 29 하계스케치-동상 수련장
1994. 12. 12~20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전북인물 열전-예루갤러리
1994. 제2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변산해수욕장
1995. 3. 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전북예술회관)
1995. 3. 18 세미나주제:"우리다운"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박용숙(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1995. 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광복50주년(기린예원)
1995. 12. 22 파출소그림 걸어주기(전주시내 12개파출소 작품기증) 정기총회
1995. 제3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 25 정기모임
1996. 6. 28~7. 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6. 12. 6~13 전북회화 테마展-기린갤러리-전북문화 유적 기행전
1996. 제4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2. 12 정기총회
1997. 2. 20 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1997. 4. 19 신입회원 환영회 및 세미나
주제:한국화의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초청강사:이철량 교수님
1997. 6. 26 정기 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1997. 8. 28 전북 회화지 발간 편집 1차 모임
1997. 10. 28 전북 회화회展, 제5호 전북 회화지 발행
1997. 12. 정기총회 및 결산
1998. 2. 동계야외 스케치-덕유산, 운주
1998. 4. 정기모임-하계 도예 캠프 계획 수립
1998. 6. 정기모임-정기 전북회화회전 계획 논의
1998. 8. 하계 도예 캠프-기간:8.6~8.8 장소:백제도예
테마를 위한 마이산 기행-기간:8.8
안내:진안 문화원장 1998. 10. 정기모임 1998. 11. 18
전북 회화회전 및 제6호 전북 회화지 발간
1999. 1. 14~1. 16 도예캠프(백제예술대학 도예과)
1999. 1. 14 초청 세미나(주제:21C 한국화의 전망 및 기대와 역할
초청강사:이철량 교수
1999. 1. 15 도예초청특강
(주제 "도예의 재료학에 대하여" 초청강사:심재천 교수
1999. 3. 19~3. 31 백제대학 기획 초대전
-도예의 숨결을 찾아서 / 백제대학 백암미술관
1999. 5. 정기모임-한국정신과의 교류전 논의
1999. 8.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1999. 10. 정기모임-전북회화회 10주년 기획논의
1999. 11.~12. 전북회화회 편집 모임, 제7호 전북회화지 발간
1999. 12. 17~12. 23 전북회화회 10주년
-1999 vs 2000 전북회화와 한국정신 교류전
-특별기획(그림이 있는 찻상 풍경전)
2000. 5. 18 정기모임
2000. 6. 22 정기모임-신입회원 김승호
2000. 8. 18 테마여행-고창 고인돌(이기화)
2000. 8. 3~18 포스코초대전(포스코문화 갤러리)
2000. 9. 16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2000. 11. 8~14 전북회화회전(민촌)
2000. 12. 15 정기모임-신입회원논의
2001. 1. 11~12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신입회원:김란, 류명기)
테마기행(실상사, 흥부마을)
2001. 4. 10 정기모임-홈페이지제작 및 교류전 논의
2001. 9. 14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회지 논의
2001. 11. 19~11. 25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부산)
2001. 11. 30~12. 6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전북대 삼성문화관)
2001. 12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 (회원탈퇴-류명기, 류일선, 엄기석)
2002. 2. 28 정기모임-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2002. 6. 7 정기모임-전시회 및 회화지 논의
2002. 7. 10 신입회원 환영회 및 스케치여행 논의
(신입회원-강화정, 심소연)
2002. 8. 16 정기모임 및 스케치여행-섬진강 일원
2002. 10. 12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2002. 11. 22~28 제10호 전북회화지발행 및 정기전시회 (경원아트홀)
2003. 3. 정기총회
2003. 6.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3. 8. 정기모임-실기대회 추진계획 및 회지논의
2003. 10. 정기모임-실기대회 운영 및 정기전 논의
(신입회원-박지혜,김영애,윤호,이혜련,최윤경,이광원)
2003. 10. 23 제1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 개최(전주덕진공원)
2003. 11. 정기총회-시상식 및 입상자 전시 및 정기전논의
2003. 11.30~12.6 제11호 전북회화지 발행 및 정기전
제1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국립전주박물관 사회교육관 기획전시실)
2004. 3 정기총회
2004. 4. 17 신입회원환영식및야외스케치여행(구례,산동)
2004. 6 정기모임:제2회전국청소년전통회화(한국화)
실기대회운영위원모임
2004. 8 정기모임:실기대회및회화지논의
2004. 9. 22 실기대회(덕진공원)
2004. 10. 24 제12호전북회화지발간(정기전및시상식-국립전주박물관)
2004. 12 정규총회
2005. 2 도예캠프 '위봉사' 및 신입회원 환영식
2005. 5 정기모임 :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계획
2005. 7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개최(덕진공원)
2005. 8 정기모임 : 실기대회전시 및 시상식
회화회지(회화회 부산,대전 교류전) 논의
2005. 12 정기총회 / 제13회 전북회화지 발간
먹빛 형상전(전북회화회, 대전 · 부산 교류전)
2006. 2. 18 대천MT, 스케치
2006. 6. 2 미술 캠프 체험
2006. 7.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덕진공원)
2006. 8.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 (우진문화공간)
2006. 9. 29 정기세미나(허브랜드) - 전시회 및 회화지 발행 논의
2006. 12. 8 정기모임 - 정기 전시 논의 (신입회원 김서영)
2006. 12. 15 정기 전시 (예술회관)
2006. 12. 5 제14호 전북회화지 발행
2007. 1. 5 부안 한국미술세미나
2007. 2. 1~1. 26 뉴욕전시 (월드 파인아트 갤러리)
2007. 10. 5~14 정기전시회(민촌아트센터)
2007. 12. 12 전북회화 발행 (제15호)
2008. 2. 5 부안 격포 학술세미나 및 스케치여행
2008. 9. 8~11 부산교류전 (지필묵 현재, 지금 여기)
2008. 11. 20~26 정기 전시 (우진문화공간)
2008. 11. 20 전북회화 발행 (제16호)
2009. 11. 정기 전시 (우진문화공간)
2010. 3. 25 정기총회
2010. 7. 5 정기모임 - 전시및 스케치여행 논의
2010. 8. 13~14 부안 MT, 스케치여행및 먹빛체험
2010. 10. 20 정기모임-회화지자료제출 및 교정
2010. 11. 8 통권 제17호 발행(신입회원 이봉금)
2010. 11. 16~21 정기전시회(교동아트스튜디오)
2011. 8. 16~21 정기전시회(교동아트센터)
2011. 9. 23~24 정기세미나(유안순게스트하우스)
2011. 12. 21 통권 제18호 발행
2012. 8. 28~9. 2 정기 전시(교동아트센터)
2012. 12. 3 통권 제19호 발행
2013. 6 하계 MT.(전남 중도)
2013. 9 신입회원(송현성)
2013. 12. 10~15 정기전(교동아트센터)
2013. 12. 통권 제20호 발행
2014. 2. 13 정기모임(신입회원-송태정, 이동형, 최윤진)
2014. 8. 13~19 정기전시회(도립미술관 서울관)
2014. 8. 20~10. 22 최북미술관 초대전(최북미술관)
2014. 8. 23~24 하계 M.T(무주)
2014. 12 통권 제21호 발행
2015. 11 정기모임
2015. 12. 10~29 정기전시 (갤러리 누벨백)
2015. 12 통권 제22호 발행
2016. 11. 18~12. 9 정기전시 (갤러리 누벨백)
2016. 12 통권 제23호 발행
2017. 12. 1~8 정기전시 (남원 예가람길 갤러리)
2017. 12 통권 제24호 발행

C.O.N.T.E.N.T.S

05 **이승훈 시** 여름 모퉁이
06 **전북회화회 발자취**
08 **전북회화회 전시리뷰**

나의작업노트

10 **김근미**
11 **박성수**
12 **박지예**
13 **방정엽**
14 **송태정**
15 **송화정**
16 **안순금**
17 **이명자**
18 **이승훈**
19 **이진숙**
20 **이철량**
21 **유예빈**
22 **정미현**

전시리뷰

23 **박지예 개인전** | 옆집 여인 Ⅱ
24 **송태정 개인전** | 세상사, 기다림과 만남이 답이네
25 **이철량 정년기념전** | 우리시대의 먹그림
26 **전북회화회** | 남원전시리뷰
27 **이효문 초대전** | 실체 그리고 허상
29 **이상조 개인전** | Dialogue

【특집】 역대 기고문 발췌-전북회화회를 바라보며

32 **박민평** |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1997년 제5호)
34 **황순례** | 감성 표상의 미학 (1998년 제6호)
36 **이창규** | 한국의 정신이 숨쉬는 미술 (2000년 제8호)
40 **이철량** | 전북회화회를 바라보며 (2002년 제10호)
43 **이철량** |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며 (2003년 제11호)
44 **곽석손** | 비상하라. 전북의 젊은 작가들이여! (2004년 제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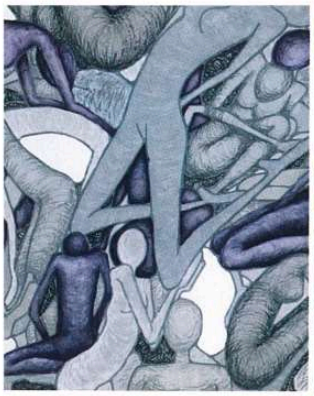
특별기고

46 **채 영** | 지역으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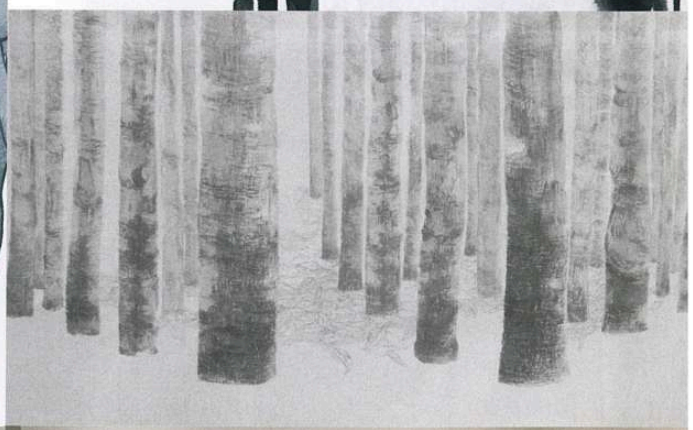
여적

49 **읽을만한 책** | 편집부
50 **회원주소** | 편집부

Chonbuk Painting Association, Number 24. 2017. ▸▸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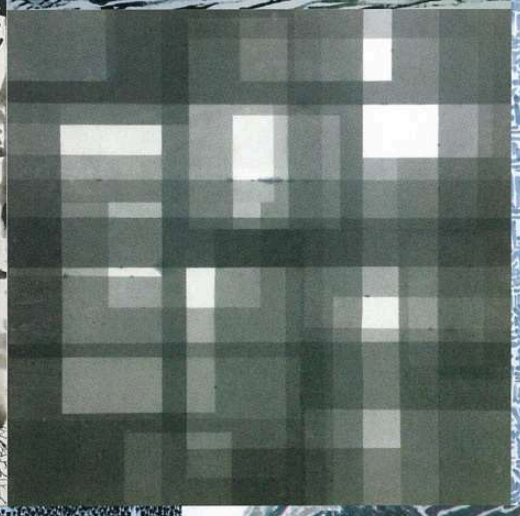
2017 전북회화

2017. 12.1~8
남원 예가람길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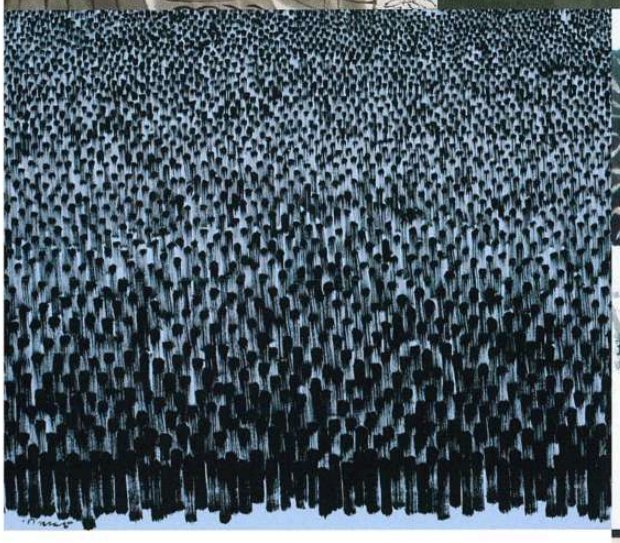
김근미 이우정 박지예 방정엽 송태정 송화정 안순금 이명자 이승훈
이진숙 이철량 유예빈 정미현 박성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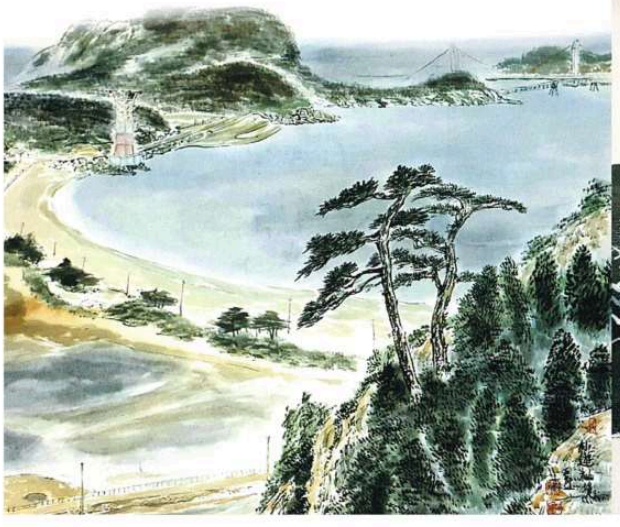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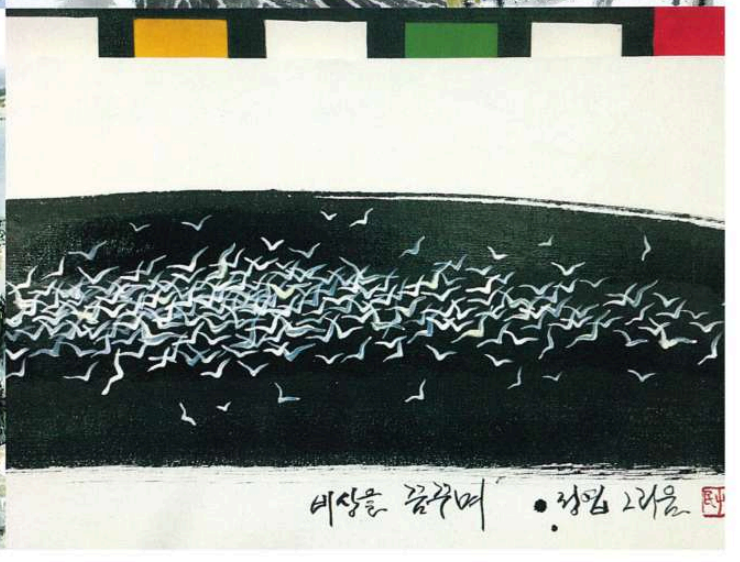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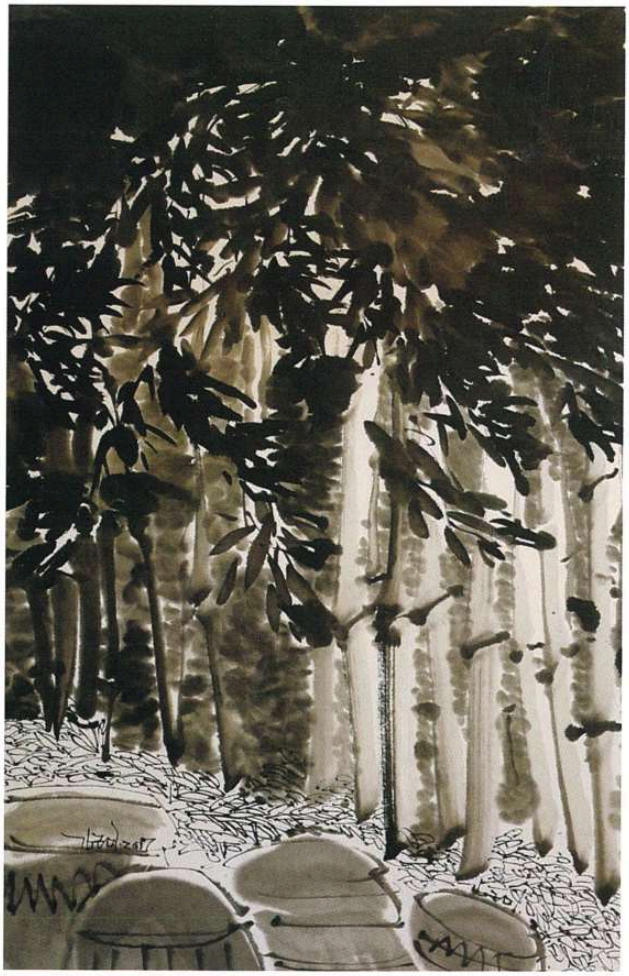








대나무 숲(1) / 50x70cm / 화선지, 수묵 2017



대나무 숲(2) / 50x70cm / 화선지, 수묵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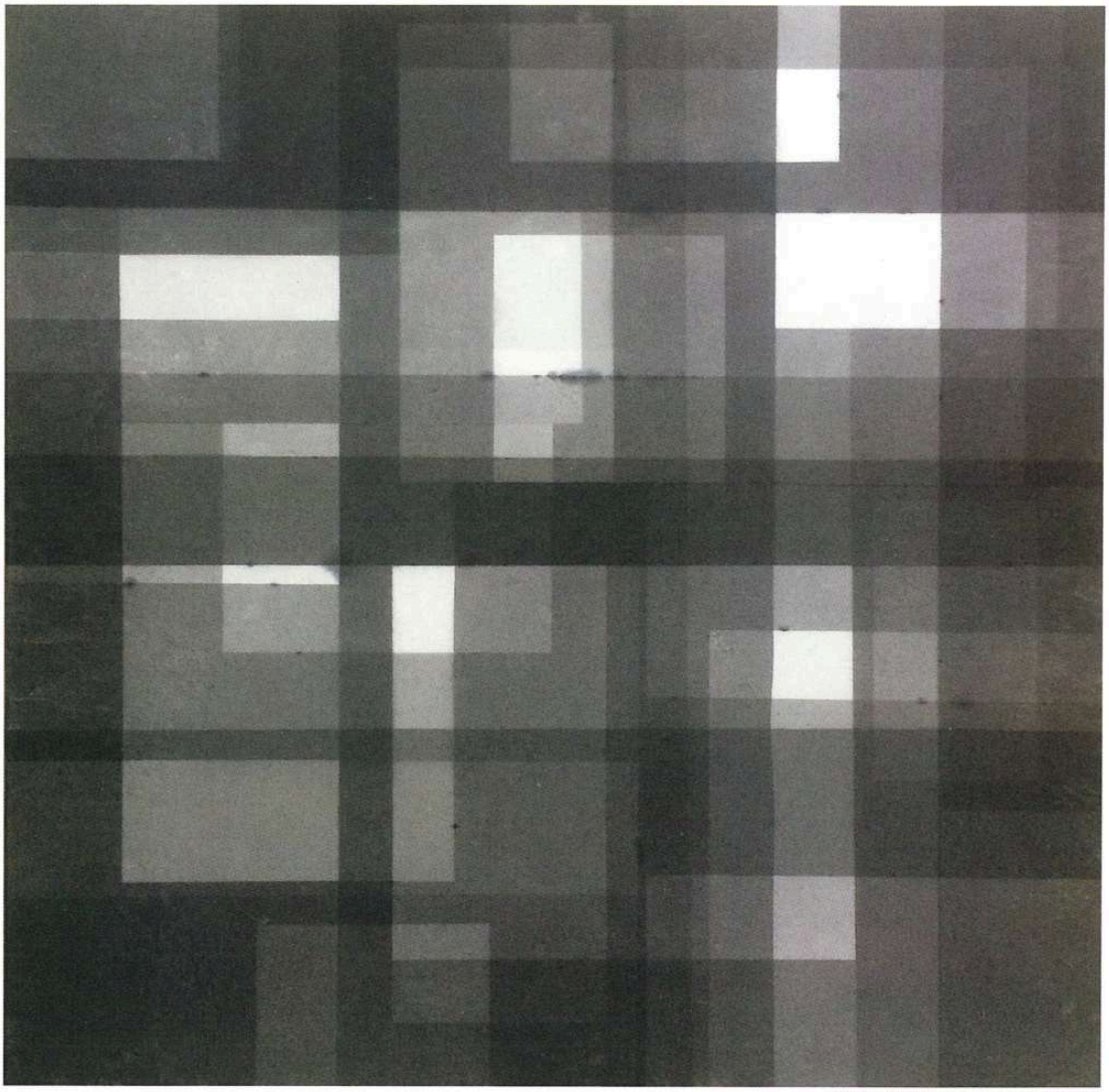
창밖으로 보이는 대나무 숲과 장독대를 바라보며 칠월의 더위를 잠시 잊은 채

담백한 묵향에 심취되어 무심코 옮겨 보았다.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주어진 인연과 환경에 감사할 따름이다.

김 근 미 (Kim, Geun-mi)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239, 더포스코Ⓐ 108동 203호 • 전화 : 010-4652-3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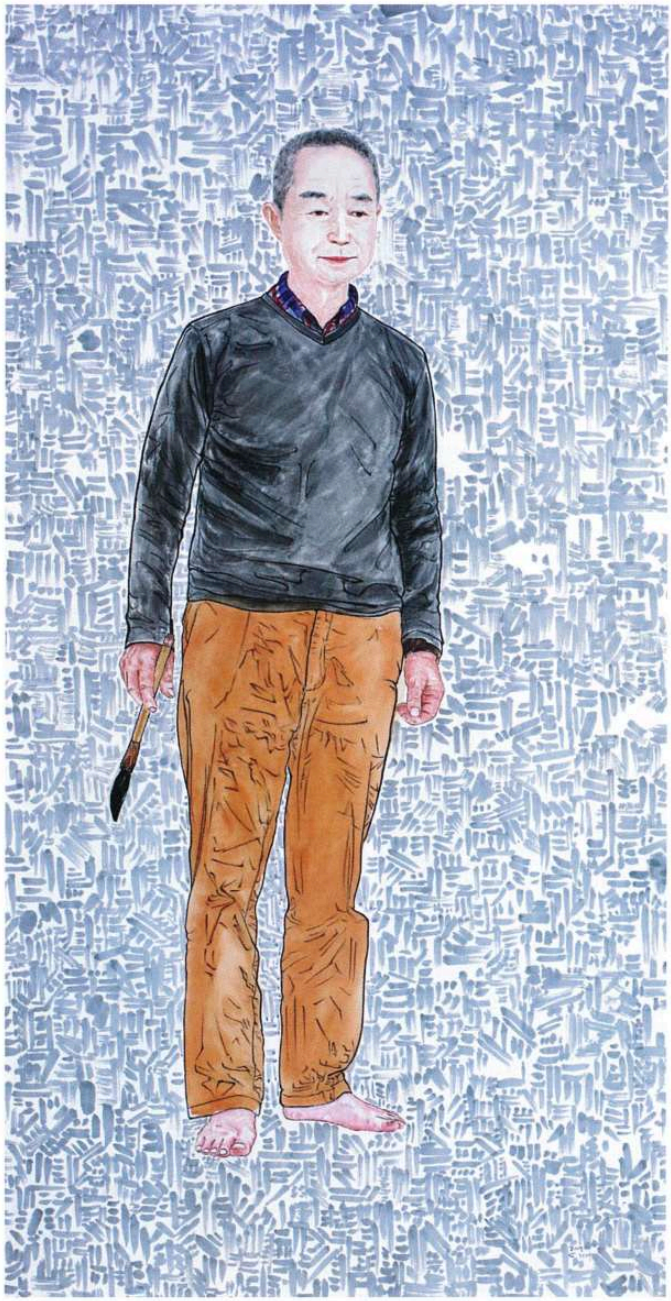


풍경 / 66x66cm / 화선지에 수묵 2017

나의 풍경시리즈에는 산 또는 건물과 같은 현실 속 풍경이 아닌 온라인 속 풍경이 그려진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림의 큰 틀 안에 사각형의 화면을 또 만들어 그 안을 스프레이로 그려진 선과 면들로 채웠다. 이러한 형태는 우리가 일상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의 모니터, 혹은 핸드폰의 액정 속을 표현한 것이다. 또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는 무수한 영상과 사진 그리고 정보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스프레이로 표현하게 되었다.

박 성 수 (Park, Sung-soo)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일반대학원 졸업 • 개인전 12회 • 그룹전 100여회 • 현)전북대학교 미술학과 출강
• 경기창작레지던시(2014~2015) • 영은미술관 창작스튜디오(2011~2012 단기)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45-9 • 전화 : 010-9992-3661 • E-mail : sspark0308@yahoo.co.kr



행복을 그리다 / 69×134cm / 종이에 먹과 채색 2016

그동안 본인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 오며 다양한 환경과의 관계에서 유기적인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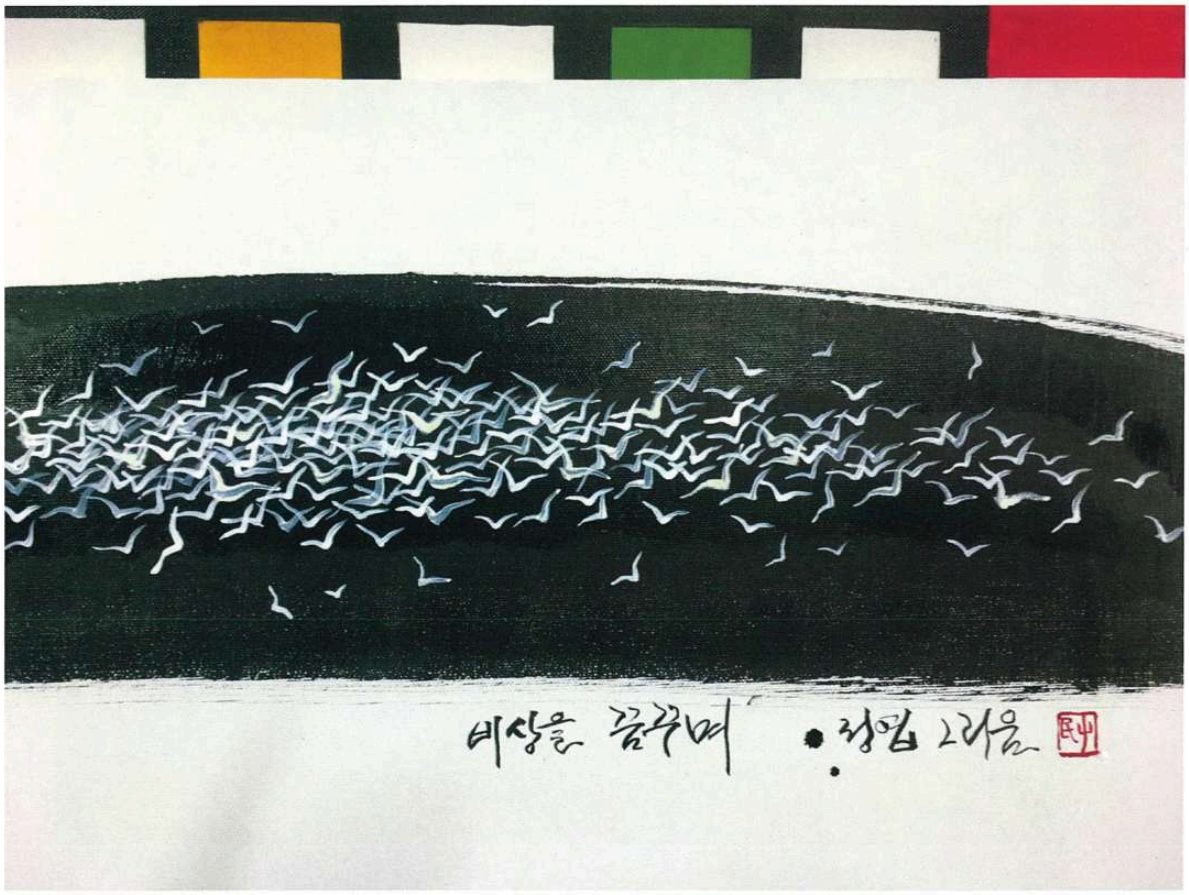
현재 "옆집 여인"의 주제를 가지고 여자들의 삶의 여러 감정을 화폭에 담아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전시 작품은 그림을 그리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 주시고, 작업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멘토이신 스승님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인물을 표현하고 그분의 작품을 배경에 담아 보았다.

앞으로도 본인은 현대미술의 동양적 접근을 고민하고 실험적인 연구를 지속 해 나갈 것이다.

박 지 예 (Park, Ji-ye)

•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졸 • 전북대 박사 졸 • 개인전 6회 • 1980년대와 한국미술(전북도립미술관) •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교 · 강사전(전북대학교예술진흥관) 외 다수
• (현) 충북대학교, 국립전주박물관 강사 • (현)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문연구원 • 활동 (원묵회, 전북회화회, 인물작가회, 동질성, 전라북도미술대전 초대작가)
•주소 : 55122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81 11동 501호 •전화 : 010-2658-7822 •E-mail : pjy7822@hanmail.net



일러스트-비상을 꿈꾸다 / 110(cm) x 60(cm) / 천 + 수묵채색

선생님, 웬 새가 이렇게 많아요?

응, 이 땅의 수많은 너희들이란다.

마음의 평정심을 찾지 못한 아이들은 오늘도 점심시간 후 미술실에 모여 잡담과 한숨이 오가고

눈망울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다.

늦춰진 시험날짜만큼 아이들 고통의 날짜도 늘어났다.

오늘에 좌절하고 내일에 절망하는 이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격려의 말도 허영일 것 같아 말없이 바라만 본다.

펴보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움에 그저 붓질 한 번 더하는 것으로 마음을 달랠 뿐이다.

한 번 쯤은 힘차게 비상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방 정 엽 (Bang, Jeong-yeop)

• 전북대 미교과 졸 • 1980년대 현대수묵화 활동 • 전북회화회 · 미협회원 • 現) 남원여고 재직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 대우진버들아파트 207-802 • 손전화 : 011-681-7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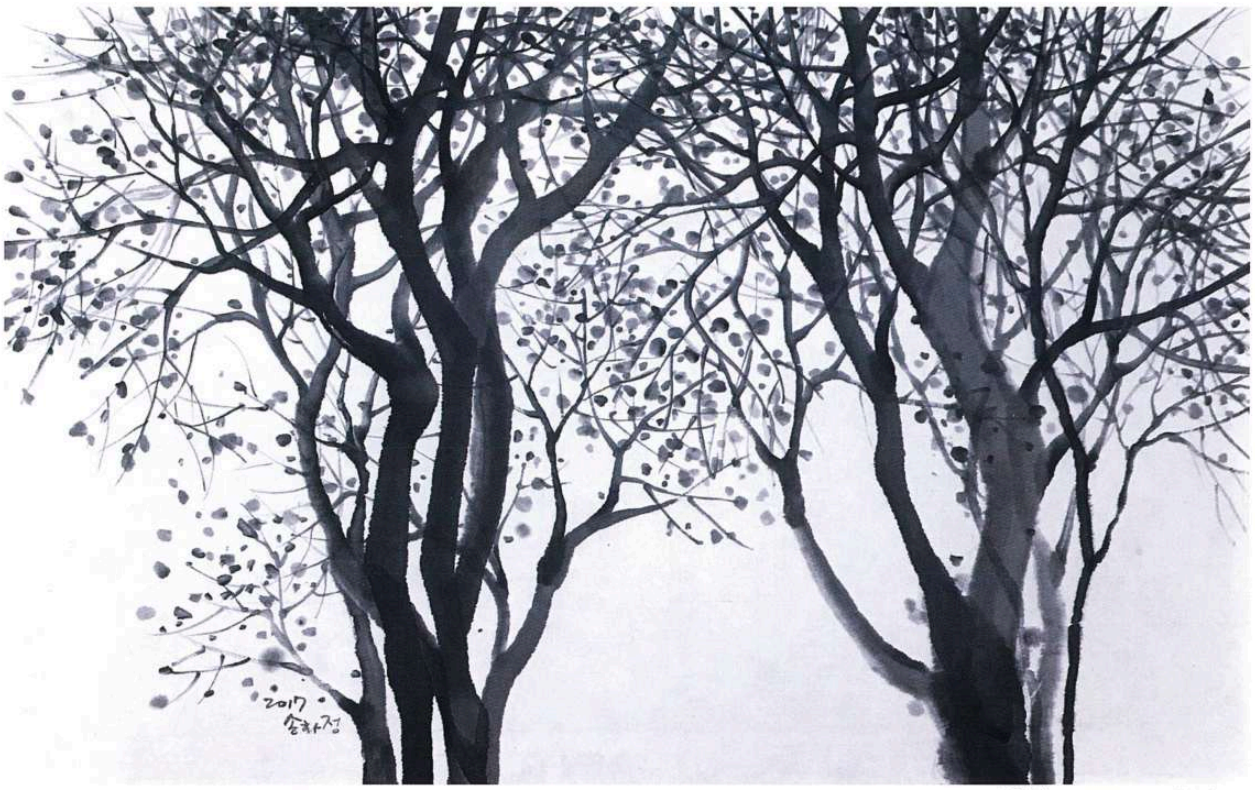
가을 동화 / 60cm×60cm / 한지에 담채, 2017

살랑이는 가을 바람
내 마음속에도 불어오는 날

고향마을 야산을 거닐다 보면
가을 동화를 만나게 된다.

송 태 정 (Song, Tae-jeone)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 2007-12,개인전3회 (전주소리문화전당) • 2011 아메리카, 미술로 들여보기전(LA-verdugo gallery) • 2013-14 센디에고에 부는 바람전(미국 캘리포니아)
• 2004-14 건지전(세종문화회관, 교동아트센터 등) • 2014 전북회회화전 (인사아트 갤러리) • 그외 다수 그룹전 및 초대전 참여 • 현) 건지회원, 한국 미술 협회회원 ,전북회화회 회원
• 현) 전북 완주군 동양초등학교 재직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호성로 170번지 진흥더블파크 311동 504호 •전화 : 010-9860-3883 •E-mail : dduknemi@hanmail.net



11월에 / 69x45cm / 종이에 먹 2017

하얀 화선지를 마주하고 있으면 시간까지도 멈춘 듯한 고요, 어느덧 차분해진 내가 심연 속에 서 있다.
물과 먹이 만나서 시원스레 뻗다, 곱게 번지고 또 자연스럽게 엉기며 누적되는 내 기억의 편린들.
마음 한 켠에는 설레임이 일고 지나온 시간 속에서 감동이었던 순간들이 연이어 반짝인다.

꽃도 나무도 나의 화면에 등장한 순간, 더 이상은 꽃이, 나무가 아니다.
선과 면과 농담으로 발현된 형상은, 그저 내가 기억한 순간들의 감정이 펼쳐지고 집적된 것이다.
내 작업은 마치 오랜 동안에 얽혀있던 어떤 그리움의 실타래를 하나씩 하나씩 푸는 듯하다.
붓을 잡은 손의 떨림처럼 서툴고, 빛에 투영된 그림자처럼 본체를 명확히 알 수도 없지만
또 다른 나를 찾아가는 이 모색의 여정에 오늘도 마음을 싣는다.

송 화 정 (Song, Hwa-jeong)

• 전북대 미술교육과 졸업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황강서원4길 15-6 • 전화 : 010-4185-1885 • E-mail : ilikegogh@hanmail.net



여름 / 110×97cm / 수묵담채, 2017

하나, 매일 매일이 반복된다. 하는 일, 먹는 것, 차를 타고 움직이는 것, 월요일에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긴 시간을 한 곳을 응시하며 시간의 흐름에 모든 걸 맡기고 반복적으로 지낸다. 권태롭고 나태해지는 삶이다.

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를 오랜만에 다시 만났다. 내가 그 친구한테 느꼈던,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그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 좀 더 세련되고 濃厚한 모습으로...

셋, 매일 아침 일어나 마당에 나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연못이다. 차가운 의자에 앉아 연못 안과 주변의 많은 생명들을 살핀다. 제각각 이유를 가지고 피었다 지는 풀들과 꽃들, 연못안의 움직이는 다슬기, 물고기들을 바라보며 無念無想의 세계에 빠져든다.

넷, 작업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하루 한번은 붓을 손에 쥐어야지 하며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그리고 바쁜 생활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그냥 지나가는 하루를 용서한다. 나를 용서한다. – 2017년 가을에

안 순 금 (An, Soon-geum)

• 전북대학교 미술교육 학 · 석사, 영국 코벤트리 대학 석사 • 개인전 3회 – 1997. 얼화랑(전주), 2004. The Glass Case, Herbert Art Gallery & Museum (Coventry, UK), 2005. 우진문화공간 기획초대전(전주) • 단체전 및 기획전 : 젊은 세대 새로운 시각과 조형전, 전라한국화제전, 전북도립미술관 개관전- '전북 미술의 조명'
• 現)전북화회회 회원 • 現) 김제여자고등학교 재직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433-1 • 전화 : 010-2635-6314, 063) 546-2517 • E-mail : f12-4@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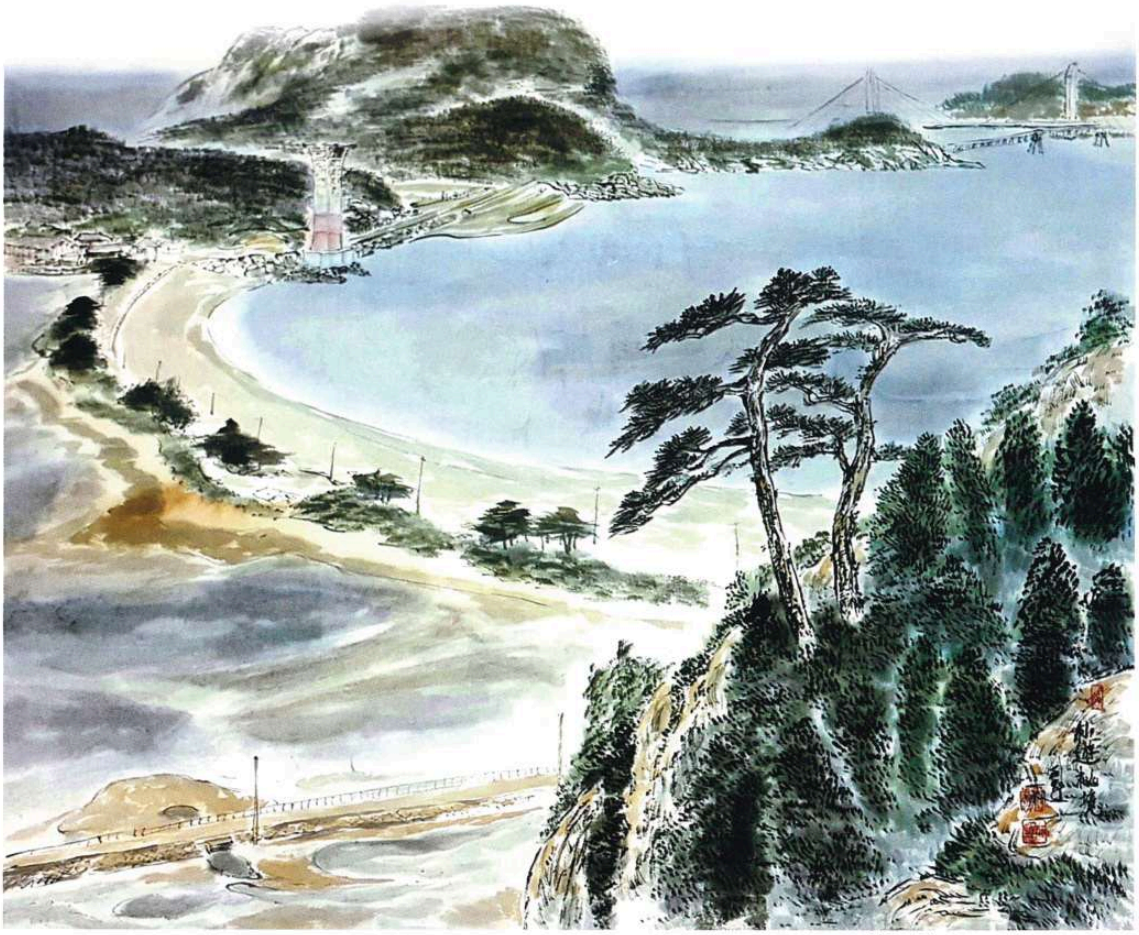
삶은 흐르는 강물처럼 / 90.9×72.7cm / 캔버스+아크릴물감+먹물, 2017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내리면 눈이 내리는 대로
땀이 흐르면 땀이 흐르는 대로
삶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먹으로 나의 삶과 마음을 담고 싶다.
먹은 나에게 다양한 빛깔로 다가 온다.
먹을 만지작거리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짜릿하다.
짝사랑하고 있는 처녀의 가슴처럼
나의 먹과의 만남은 가슴 떨리는 행복한 시간이다.

먹이 펼치는 삶의 이야기는
매일 새롭게 변화하면서도 고요히 흘러가는 물과 같다.
흐르는 삶을 물과 같은 맥락에서 표현하는 나는
끊임없이 삶을 먹물에 투영할 것이다.
오늘도 나의 삶을 물에 맡긴다.
나의 깊은 내면이 고요하고 행복하며
평화롭게 정화되어 표현되길 바란다.

이 명 자 (Lee, Myong-ja)

•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과 졸업 • 2010년, 2012년 전북아트페어(한국소리문화전당) •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1회 • 전라북도 미술대전 입특선 4회
• 세계서예비엔날레 입선 1회 • 대한민국 새천년 서예문인화대전 입선 1회 • 춘향미술대전 입특선 3회 • 영호남 미술교류 소통 & 만남전 외 다수그룹전 출품 • 단체전 및 공모전 70여회
• 현) 남원고등학교 재직 • 주소 : 전북 김제시 금구면 낙산 4길 111-6 • TEL : 자택(T) : 063 547 5896, 직장(T) : 063 630 7923, 010-8004-5895 • E-mail : mjlee0117@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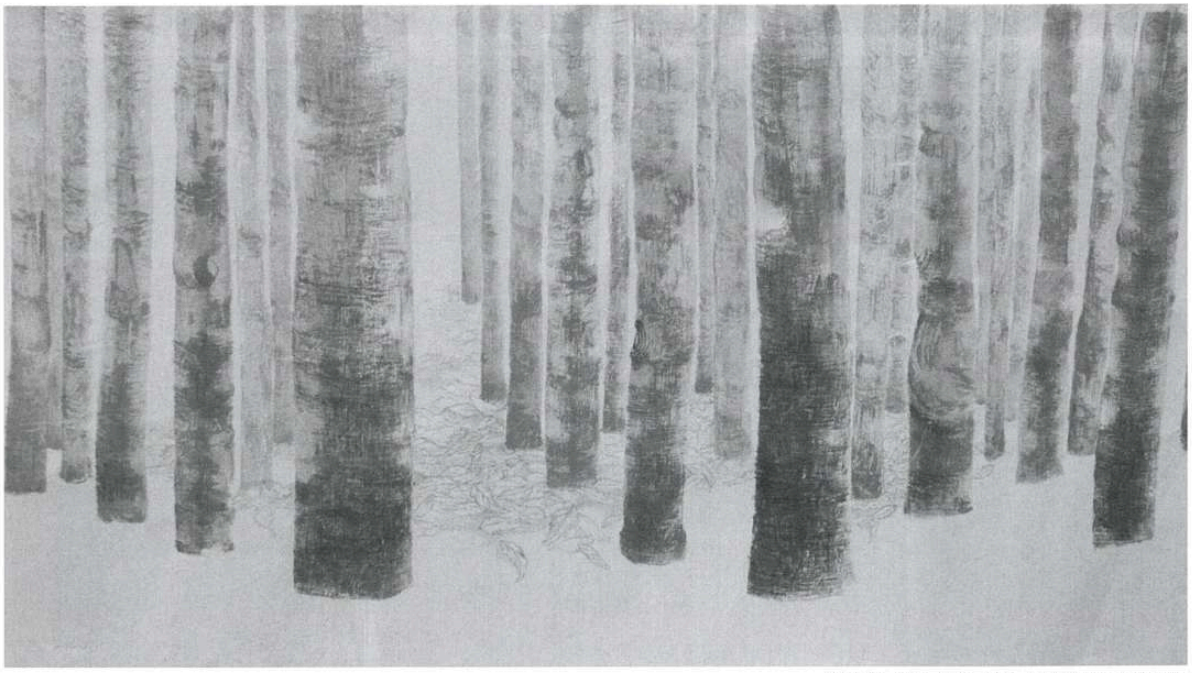


선유비경 / 69×70cm / 지본수묵, 2017

선유도는 고군산군도의 중심 섬이다. 고군산8경 중에서 명사십리, 망주폭포, 평사낙안 등을 말하며 진말이라는 동네에 위치한다. 이번 그림은 망주봉에서 그렸으며 선유비경이라고 하였다. 망주봉은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선유도는 예부터 해상요지였다. 무역선박과 어선과 세곡선이 드나들던 곳이다. 풍랑을 피하고 안전한 해로를 갖추고 있으며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이다. 선유도 북단 100m에 선유봉이 있는데 그 정상 모습이 두 신선이 바둑을 두는 모습 같아서 선유봉 이라고 한다. 수군절제사가 있던 자리이고 무당이 춤추는 모습의 무녀도의 무녀봉, 장구모양의 장구삼섬과 쥐가 기어가는 모습의 쥐삼섬 등 무인도도 있다. 임진왜란 때에는 이순신이 활동을 하였었다. 수정 같은 물과 눈이 부신 모래가 펼쳐져 명사십리의 해수욕장이 있다.

이 승 훈 (Lee, Seung-hoon)

• 전주대 미술교육과 동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 개인전 3회 • 인물 파노라마전 • 익산예술의 전당 개관 기념전 출품 • 시화집, 〈빈들의 소곡〉, 〈달개비 꽃 하늘〉 출간
• 미술문화컬럼집, 〈감성 그 시간 속으로〉 출간 • 현 한국미협, 지봉전, 산묵회, 전북회화회, 아트회, 현대드로잉회, 대한민국창작미술협회 회원 • 現) 군산대성중학교 재직
• 주소 : 54658 전북 익산시 배산로 91-9, 303동607호 (모현3차 현대아파트) • 직장전화 453-2127, 전화 063)851-0577, H.P 010-4115-0577 • E-mail : misege@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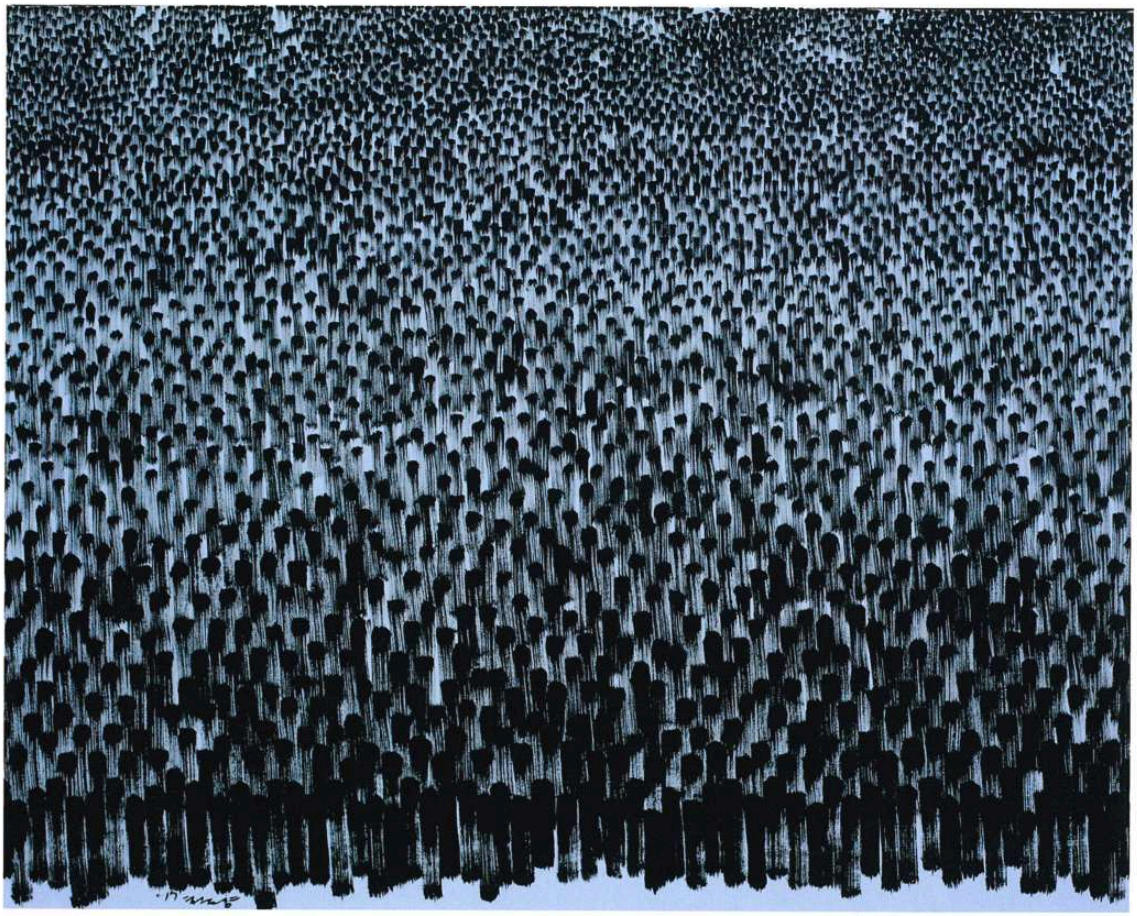
깊어가는 가을 / 140×70cm / 장지에 수묵채색 2017

시속 60km로 달려온 사간들이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일 것 같은 자연도 이런 속도라면 변하지 않을 장사는 없을 것이다. 쉬엄쉬엄 가고 싶은데 오늘 하루는 쉬어가고 싶은데, 내 뜻과는 상관없이 뒤에서 마구 밀쳐대니 가쁜숨을 몰아 쉴 틈도 없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쉬어 버리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오늘 하루도 시속 60km의 속도로 달려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은 여유있게 나긋하게 표현하고 싶다. 온 몸을 드러내고 있는 짙어가는 가을 나무들처럼...

이 진 숙 (Lee, Jin-sook)

• 원광대학교 졸 • 개인전 7회 • 단체전 및 초대전 다수 참여 • 현) 한국미협, 원묵회, 전북회화회, 전통미술교육연구회 회원 • 봄바람전
• 전주시 덕진구 정암길 67-17 • 전화 : 010-4605-9876 • E-mail : waltzz@nate.com



city / 72.7x90.9cm / 켄버스에 먹, 2017

도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자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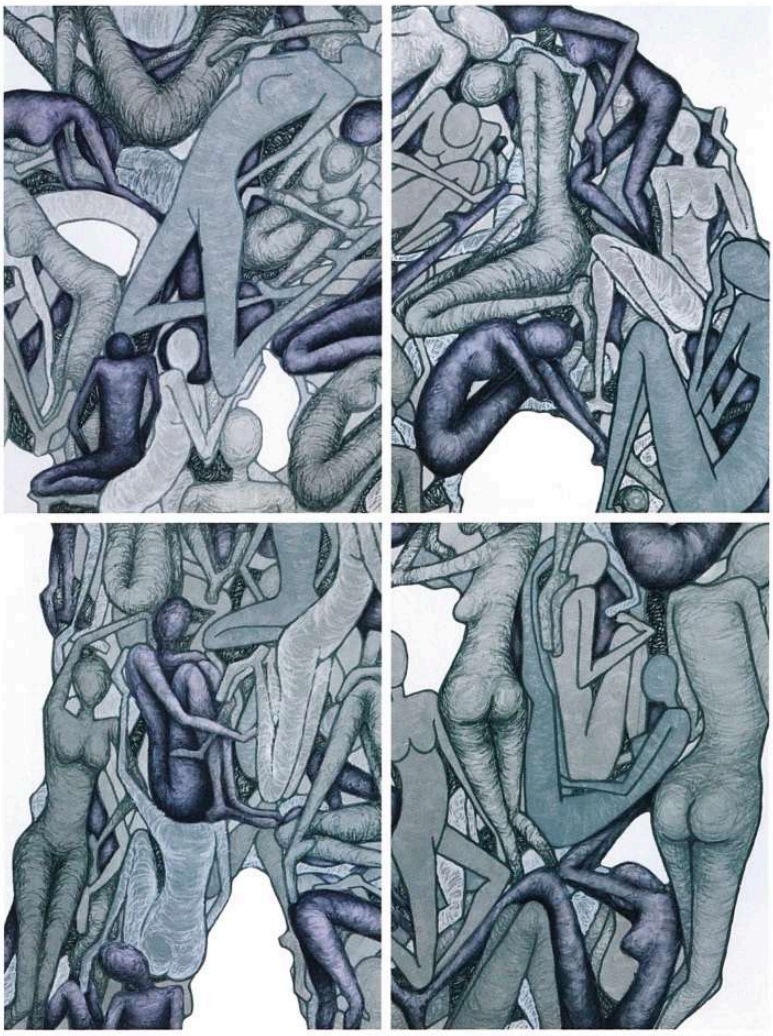
도시에는 생명이 가득하고 그것의 소멸과 생성이 쉬지 않고 지속되는 우리의 자연이며,

나아가 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는 거울이기도 하다.

나는 이를 먹빛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 철 량 (Lee, Cheol-ryang)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 ARTSTAGE SINGAPOLE(MARINA BAY) • 마니프 서울(한가람미술관) • KIAF(코엑스 전시장) • 한국화 1953-2007(서울시립미술관)
• 한국화 1953-2007(서울시립미술관) • 한 · 중 현대수묵전(서울시립미술관) • 드로잉-새로운 지평(덕수궁미술관) • 서울 국제현대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 • 한국현대회화(호암갤러리)
• 한국화 100년전(호암갤러리) • 현)전북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 주소 : 전북 완주군 구이면 신뱅이길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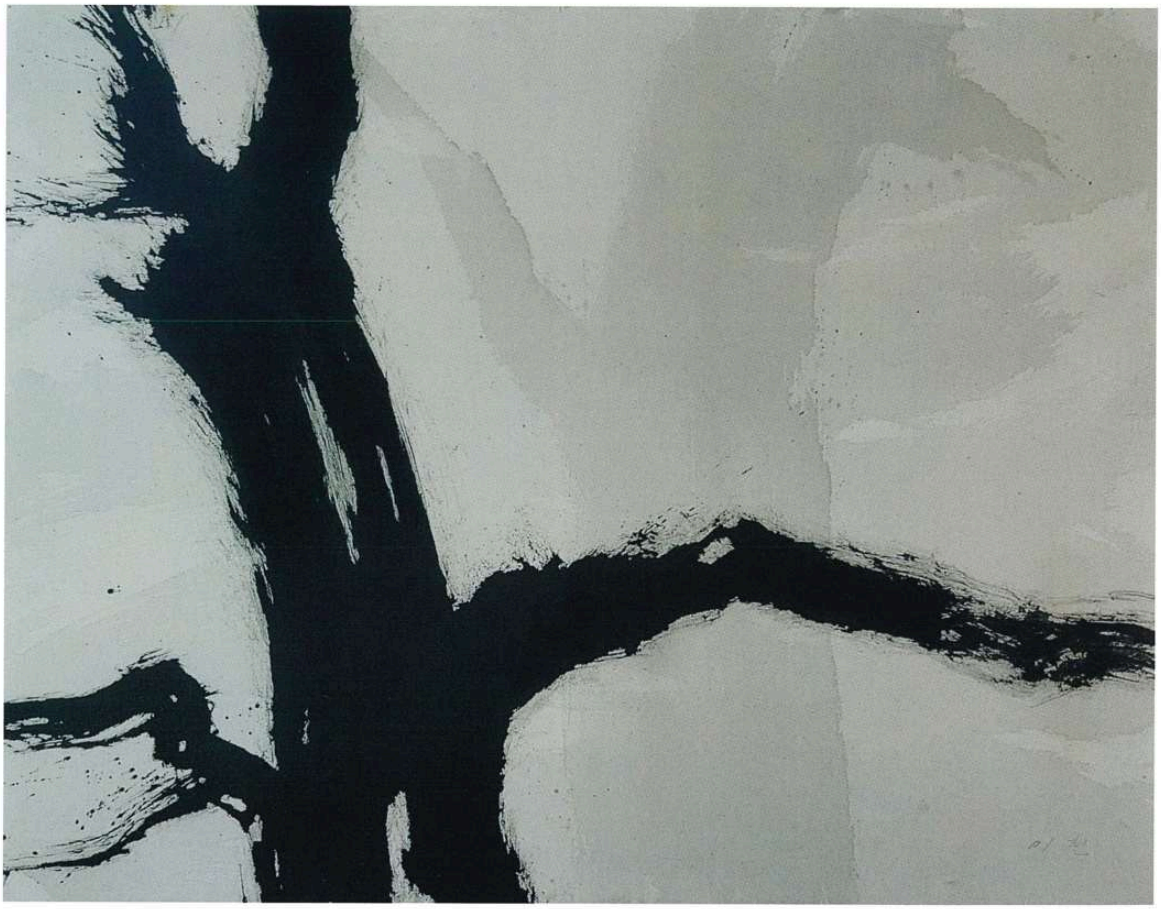


성장통 / 90×106cm / 장지에 채색 2017

어느 날 아침, 감당할 수 없는 무력감과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엉켜 나를 끊임없이 가두고 질식시켜 숨이 막혀왔다. 뒤늦은 정체성의 혼란, 타인의 시선에 엉거주춤하며 의식하는 나, 내 선택에 대한 후회 내지는 자책, 일어나지 않은 어떠한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더 깊은 늪으로 빠지는 듯 나를 조여온다. 이것은 발전하고 성숙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성장통인 것이다. 이러한 성장통을 겪으며 생각의 늪에서 헤매는 복잡한 감정을 화면에 담아보았다.

유 예 빈 (Yoo, Ye-bin)

•전북대 미술학과 졸 •주소: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안행2길 14 •전화: 010-5649-7578 •E-mail : youngbooss@naver.com



묵상 / 113×91cm / 천에 수묵, 2017

강렬함 속에 작은 떨림이 있고

고요함 속에 큰 울림이 있다.

세상이 너무 밝아 조용히 눈을 감으니

어두움 속에 아련한 빛이 내 마음을 밝히는구나.

정 미 현 (Jeong, Mee-hyun)

• 개인전 7회 • 단체전 및 초대전 110여회 • 전북회화회, 건지전, 전통미술교육연구회 회원
• 현) 상관중학교 재직 • 주소 : 565-842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778번지 • 전화 : 010-3682-3560 • E-mail : hyun3560@hanmail.net



갤러리숨 기획초대 Platform 두번째작가

박지예

옆집 여인Ⅱ 작품전

일시 : 2017년 4월 17일~29일 / 장소 : 숨갤러리

7인의 작가를 초대해 신작을 선보이는 갤러리숨의 플랫폼이
두 번째 작가 박지예의 개인전 '옆집여인II'를 선보인다.
작가가 설정한 옆집여인은 우리 곁에 가까이 하고 있는 중년 여성이다.
말 그대로 이웃에 살고 있는 여성일 수도, 엄마일 수도, 직장 동료, 누군가의 아내일 수도 있다.
나 자신일 수도 있다.
작가는 스스로가 인생의 중반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욕망과 자유를 표출시키고 있다.
"아이 엄마로, 며느리로, 직장에서 일하는 워킹 맘의 모습이 되풀이되는 삶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여러 일에 직면해 지친 중년 여성들의 잃어가는 정체성과 애매모호한 감정들을 말하고 싶었어요." 많은 짐을 떠안고 있는 중년의 그녀들이지만 젊은 날의 순수한 사랑의 감정, 설레는 꿈들은 분명 간직하고 있다.
작가는 그러한 감정들과 삶의 기운이 미묘하게 드러나도록 애썼다.
한국화의 전통적 재료를 가지고, 현대적인 해석을 해냈다.
작가의 6번째 개인전이기도 한 이번 전시는 17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진다. ▣

– 전북중앙신문 윤가빈 기자 –





세상사, 기다림과 만남이 답이네

송태정 작가 개인전

일시 : 2017. 12. 26~31
장소 : 교동아트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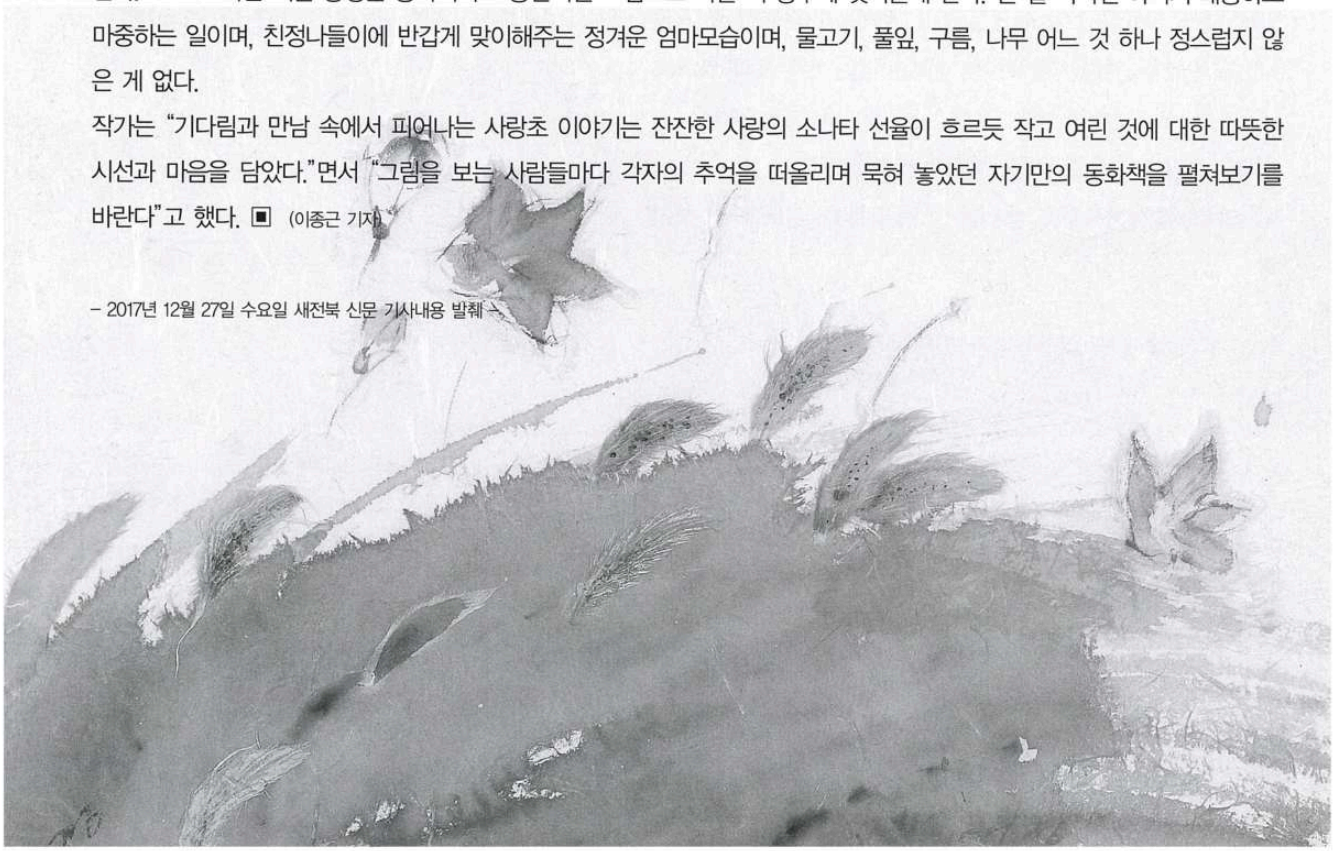
'기다림과 만남'을 주제로 한 '송태정' 작가의 개인전이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교동아트센터에서 열린다. 미국전시회에 이어 마련된 이 자리는 5회째 개인전으로 한지의 부드러운 멋을 살려 그리고 찢어 붙이는 방법을 이용한 크고 작은 작품 30여 점이 전시된다.

이번 개인전의 작품 속에서는 다양한 기다림과 만남의 장면을 만날 수 있을 터이다.

교교히 흐르는 달빛아래 비춰지는 조팝나무꽃과 바람에 날리는 도라지꽃에서는 외로움과 가슴이 아련해지는 느낌까지 들게 한다. 또 고즈넉한 시골 풍경은 동화적이고 몽환적인 느낌으로 어릴 적 향수에 젖어들게 한다. 먼 길 떠나신 아버지 배웅하고 마중하는 일이며, 친정나들이에 반갑게 맞이해주는 정겨운 엄마모습이며, 물고기, 풀잎, 구름, 나무 어느 것 하나 정스럽지 않은 게 없다.

작가는 "기다림과 만남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초 이야기는 잔잔한 사랑의 소나타 선율이 흐르듯 작고 여린 것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마음을 담았다."면서 "그림을 보는 사람들마다 각자의 추억을 떠올리며 묵혀 놓았던 자기만의 동화책을 펼쳐보기를 바란다"고 했다. ▣ (이종근 기자)

–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새전북 신문 기사내용 발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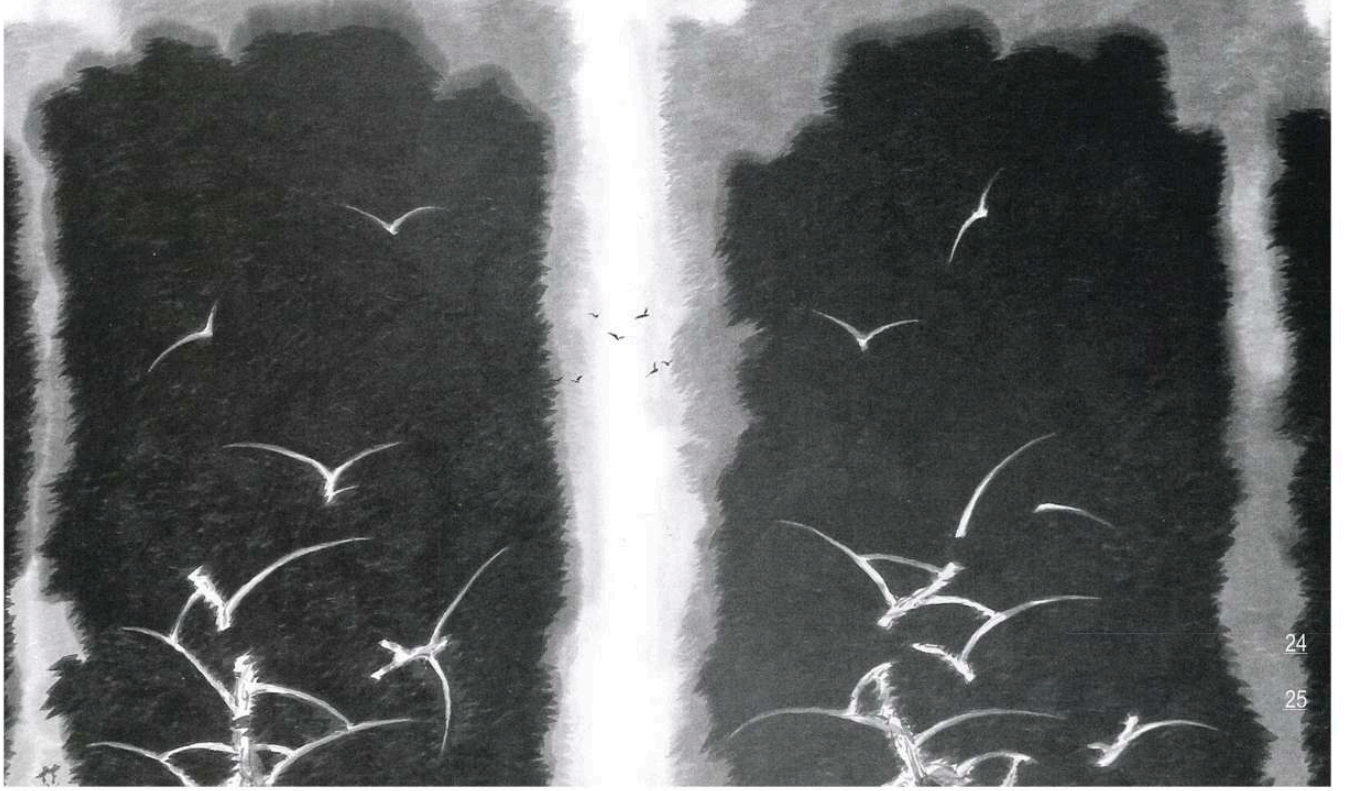
우리시대의 먹그림

이철량 정년 기념전

일시 : 2017. 5. 12~25
장소 : gallery 누벨 백

이철량 교수의 정년 기념전이 전주 루벨백미술관에서 있었다. 이번 전시는 이 교수님이 지난 1985년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에 부임하여 정년을 맞이하는 기념 전시로서 그의 제자들이 특별히 마련한 의미 있는 전시였다. 따라서 이 전시에는 1985년 전주에 내려와 지난 30여 년간 제작된 작품들 중에서 선별된 것으로서 그의 수묵 작품의 여정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리였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전북대학에 부임한 이래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즐거운 추억들을 되새길 수 있도록 지난 추억들이 기록된 사진들을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어 30여년의 세월이 간단치 않았음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

한편으로 이처럼 사제 간의 뜻 깊은 만남의 자리이기도 하였지만 또한 전북지역의 수묵화의 현대화 과정을 생각하게 하는 행사이기도 하였다. 그는 줄곧 제자들과 함께 그룹전을 이어 오면서 전북화단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자 노력해 왔던 작가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교수의 지난 시간의 작품들과 함께 그가 그동안 지역의 여러 신문들과 또한 여러 잡지들에 실었던 글들을 묶고, 그에 대한 지난 추억들을 되새기는 글들을 실어 책을 출간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그간 전북에서 그가 수묵화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또한 미술문화 전반에 걸쳐 쉬지 않고 활동해왔던 모습들을 한눈에 읽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 시대에 들어 전통적인 사제 간의 교류가 희미해지고 그 의미마저 퇴색해가는 시점에 지난 수십 년 간 간단치 않게 지내왔던 끈끈한 정을 담고 있어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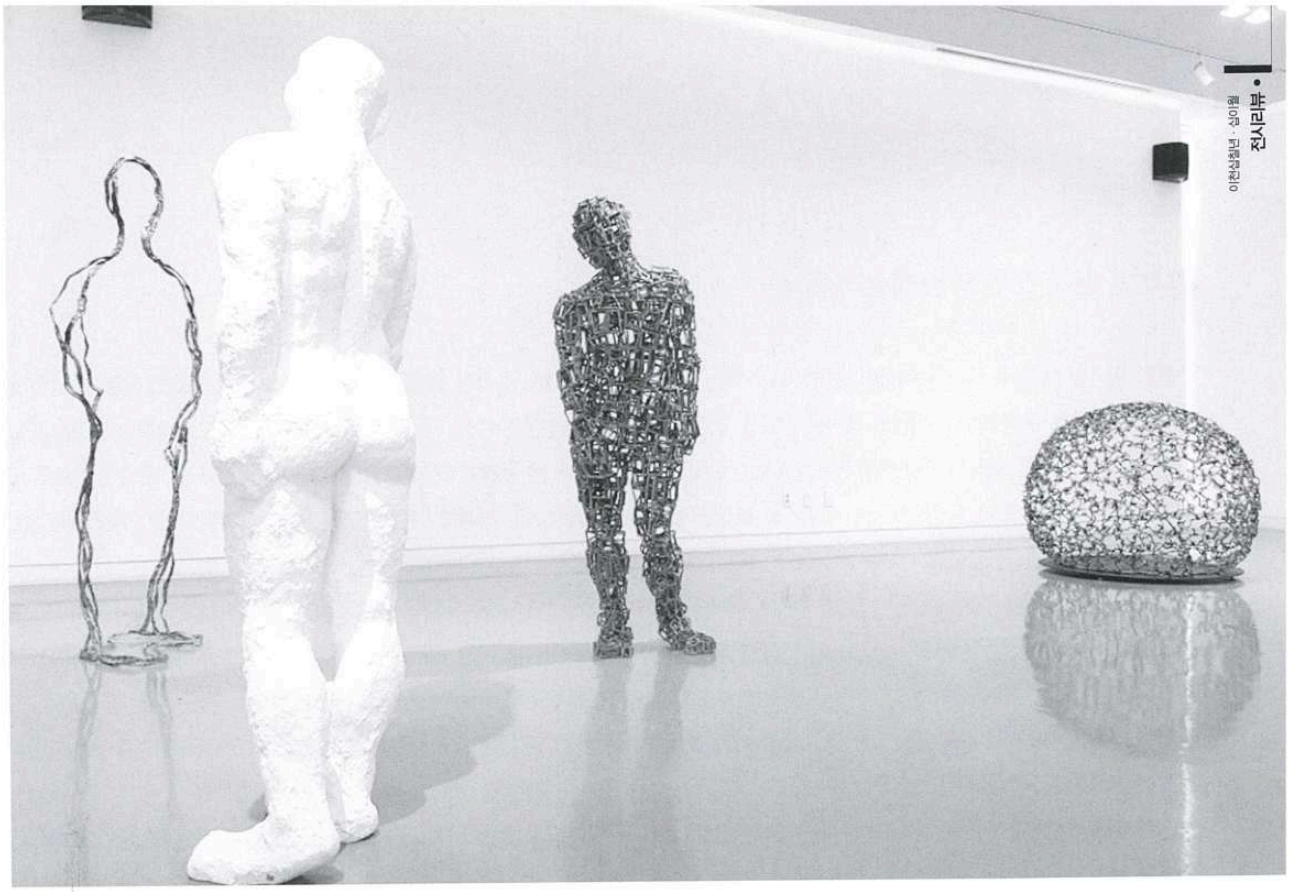




전북회화회 남원전시 리뷰

일시 : 2017. 12. 1~12. 7
장소 : 남원 예가람길 미술관

2017년 전북회화회 전시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는 의미에서 10여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12월1일~7일 까지 남원 예가람길 갤러리에서 진행하였다. 기존 한국화의 색채나 재료, 대상의 분위기를 벗어난 작품들을 일부 관람객들은 의아해 하면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람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체 그리고 허상 이효문 초대전

일시 : 2017. 12. 28~2018. 1. 20
장소 : gallery 누엘 백

이번 작업은 크게, 보여지는 형상과 선(線)적으로 표현된 투조형식의 비어있는 공간작업으로 구성된다. 석고로 제작된 인물상은 형체가 있는 실체라 가정해보고, 비정형의 육면체 공간을 만들어 이어붙여진 형상과 몇 개의 실선으로 만들어진 사람외형상처럼 표현된 작품은 그 비어있음으로 인해 허상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바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외형의 모습이 실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실체는 그 이면에 내재된 보이지 않는 존재일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을 선으로 구성한 작업은 허상이라는 상징적 표현으로서,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마음으로 혹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실체적 존재(공간)일 것 이라는 의미를 담고자 하였다.
석고인물상은 남성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남성성을 보여주고자 함은 아니다. 그렇다고 아름다움이라는 선입견을 내포한 여성을 표현하기도 좀 그러했다. 다만 보기에 괜찮은 몸매와 근육이 적당히 발달된 성숙한 중성적 인물상으로서(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기에 그럴듯한 표준형의 인물을 표현함으로써 호감을 갖게 되며 실체라 여겨지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오히려 허상일 수 있다는... 그 반면 빈 공간을 내포한 선으로 표현된 인물상은 껍데기나 허물과 같은 허상적 표현이라 여겨지지만 그 안에 나를 담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고나 할까...!!

＊＊＊【평론】

실체와 허상에 관한 존재론적 물음

그동안 일관된 매재 즉 목재를 이용한 인물상이나 추상 조각에 천착해 왔던 조각가 이효문의 근작들은 대부분 석고와 동(銅)으로 만들어진 인물상으로 구성되었다. 작업의 패턴은 석고를 집적한 입상과 동(銅)을 두드리고 용접한 투조형식의 선형으로 이루어진 입상으로 나뉜다. 이에 석고로 제작된 인물상은 형체가 있는 '실체'라 가정하고 작은 육면체 모형을 만들어 이어붙이거나 몇 개의 실선으로 구현된 인물상은 비어 있는 공간으로서의 '허상'을 표상한다고 전제할 수 있다. 이처럼 이번 전시의 화두는 실체와 허상, 유와 무, 질료와 형상 개념의 진지한 철학적 사색을 기조로 한다.

작가의 실체와 허상에 관한 성찰은 인물의 외적인 형태를 넘어 내적 본질에 관한 사유적 모델로 치환된다. 작업에 있어서도 매끈하게 잘 다듬어지거나 시선을 사로잡는 심미성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투박하면서도 거친 재료의 물성을 살리고 그 주변을 감도는 공간, 틈새, 여백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는 외형으로 보여지거나 매스로 인한 형태감이전에 윤곽 내부에서의 공간의 울림을 비중 있게 보여주고 싶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에 덩어리로서의 조각상이 아닌 잉여공간을 내포한 투조형식 혹은 석고와 금속의 물성에서 우러나오는 마티에르의 흔적에 눈길을 두고 있다.

불온한 시대 현대인의 우울한 자화상인가. 어두운 조명 하에 우두커니 서있는 블루우 톤으로 컬러링한 작품을 중심으로 배치된 인물상들은 고전조각에서 엿볼 수 있는 계산된 인체비례와 7등신이나 8등신으로 체화된 쾌적한 심미적 모델로서의 인물상과는 거리가 멀다. 이처럼 비율도 엉성하고 콘트라포스토도 어색한 그의 인물상들은 인체 조각의 아카데믹한 조형미와는 거리가 먼 비정형성을 특징으로 한다. 실체와 허상이라는 화두와 작품의 조형성을 염두해 본다면 근작들을 통해서 작가는 실존적 존재로서의 자아성찰을 맥락으로 하여 현대인의 자기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자문하는 존재론적 성찰의 여정을 표명하고자 하는 듯하다. 얼핏 눈으로 보여 지는 외형의 모습을 실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실체란 존재이면에 감추어진 허상 즉 무로서의 은폐된 존재일거라는 자각. 이는 서구 고전미학에서 회자되었던 고민 즉 실체란 물질적 존재로서의 질료 그 자체인가 아니면 비가시적 실재로서의 형상(이념)인가 아니면 양자의 조합인지에 대한 논란과도 연관된다. 일찍이 미학적 사색의 기원을 소급해 보면 예술이란 비가시적 실재 즉 관념적 실재로서의 이데아로부터 멀어진 저급한 가상으로서의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폄하되었다. 이를테면 눈에 보이는 질료적 형태는 구체화된 환영(illusion)으로서 실체의 외피에 불과한 반면 그 이미지의 궁극적 근원으로서의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 형상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논지는 데카르트적 합리주의의 기저를 이루는 사유하는 주체적 자아개념이 분열을 맞게 된 근자에 들어 실체와 허상, 본질과 모사의 이분법적 구분이 해체되고 오히려 오리지널리티의 부재증명으로서의 예술의 위상을 검토하는 현시대적 문맥에서도 그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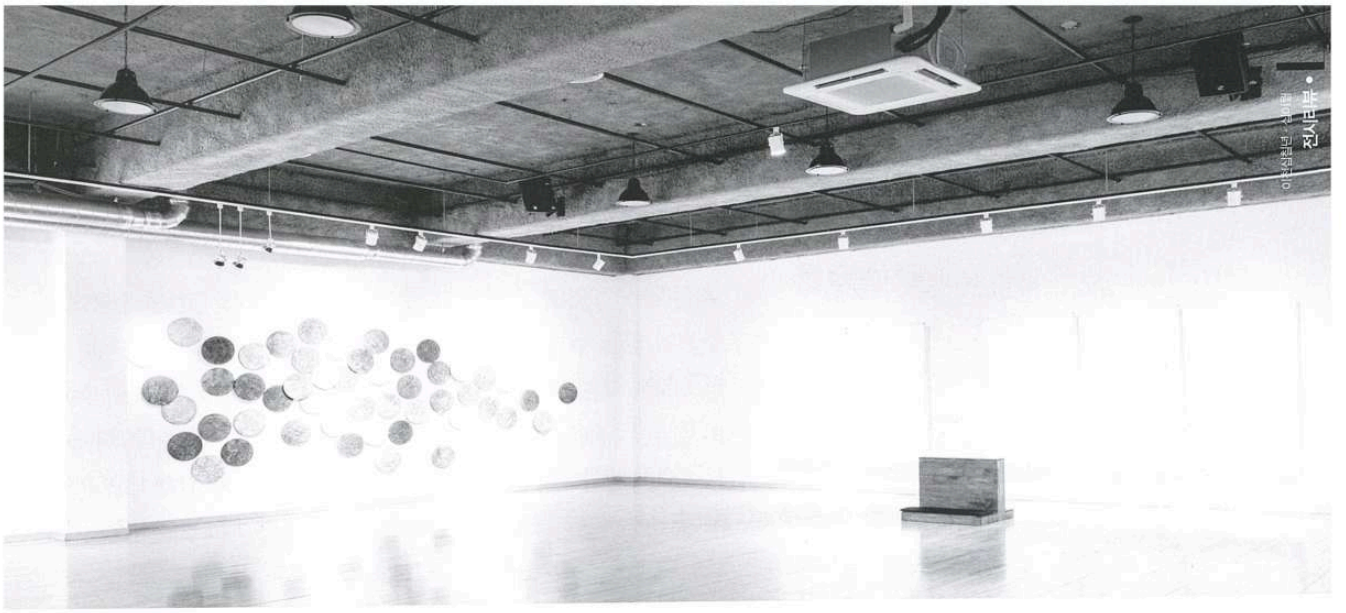
그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조각가 이효문의 근작에 있어 공간, 무는 단순한 부재가 아닌 부재증명을 통한 근원성의 발현으로서의 의미는 물론 전통철학적 관점에서의 비가시적 실체 개념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그는 조각에서의 매스와 공간 개념을 활용하여 존재와 비존재, 형상과 질료개념의 교차관계를 통해 참된 존재의 존재, 진정한 실존적 자기 정체성에 관한 물음을 탐색해 가는 예술가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시연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

2017. 12 – 미학박사 손청문 –

이 효 문 (Lee, Hyo-Moon)

• 現 전북미술대전 초대작가, 전주조각회, 지붕회, 전북조각회, 전남조각회, 한국미술협회 회원,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객원교수

•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 1길 54 • E-mail : hm9868@hanmail.net • Cell 010-2652-9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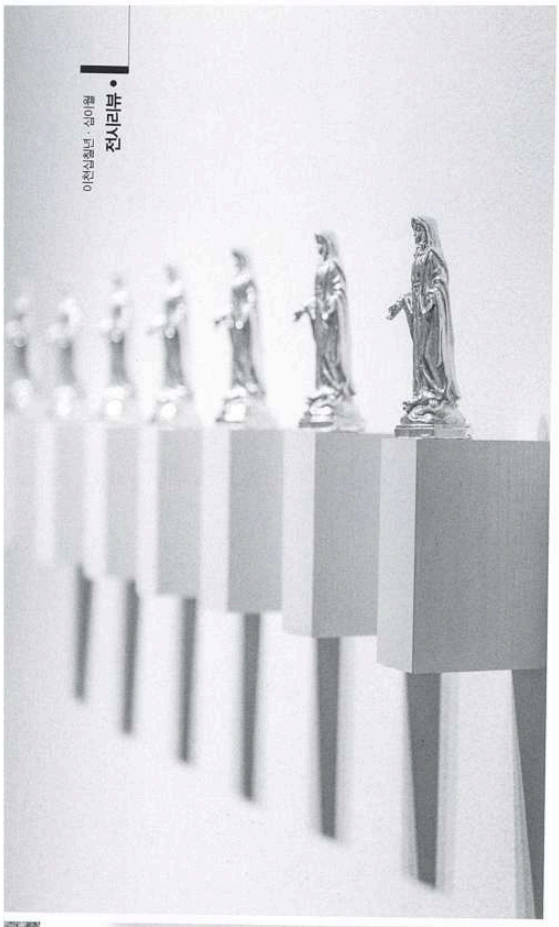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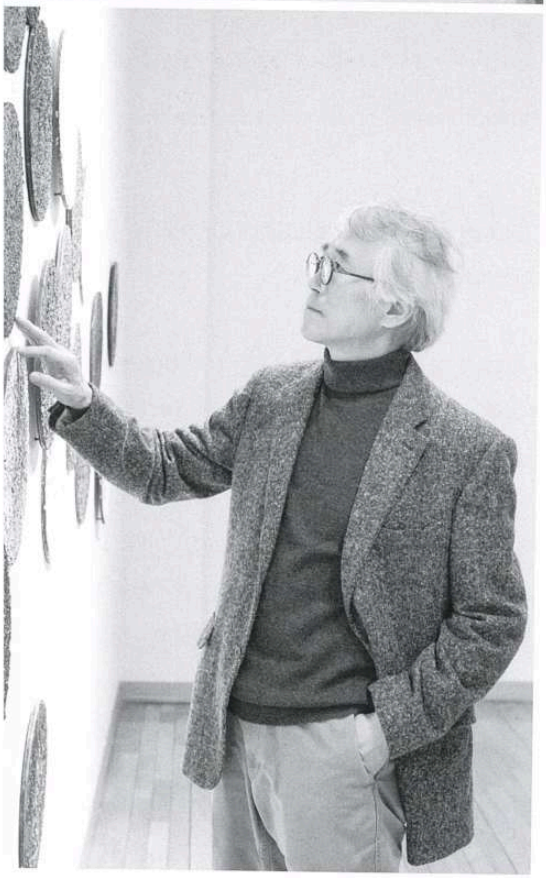
Dialogue

이상조 개인전

일시 : 2017. 11. 2~11. 15
장소 : 우진문화공간

서른셋의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Eli, Eli, lema sabachthani?/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죽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죽은 지 삼일 뒤에 다시 살아났다.
나는 그를 보지 못했다.
나는 그가 태어나고 천 구백 오십 이년이나 지난 후에야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기에 나는 그의 전 생애에 관한 기록을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 채워진 작은 책– 성경에서만 봤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 부활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나는 성경 속에서 만나는 신(god)을 이성적으로 절대 선이라 규정하고 있지만 감성적으로는 세상을 창조한 절대자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에는 신에 의해 이 세상(세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말씀으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잠언 8장에는 신이 세상을 창조하기에 앞서 먼저 지혜(wisdom)를 갖고 계셨다고 기술되어 있다. 누구든 인간의 삶에 관한 의문이 있다면 창세기와 잠언의 이 부분을 조목조목 해석하고 음미해 볼 일이다. 성경을 모순과 신비로 가득 찬 종교적 바이블로만 치부하는 사고는 성경이 비유 속에 전하는 현실을 살아야하는 인간이 갖춰야 할 지혜의 의미를 제대로 읽을 수 없게 한다.
보스니아 서쪽 작은 마을 메주고리예는 1981년부터 성모마리아가 6명의 어린이들에게 발현하는 마을로 세상에 잘 알려져 있다. 성모마리아의 모습은 서양의 예술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데, 15세기 이탈리아 화가 안젤리코(Beato Fra Angelico)가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린 작품 '수태고지'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림 속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당신은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다"는 말에 두 손을 가슴에 품어 절대 복종하는 자세로 묘사되어 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진 마리아여서 사람들에게 친근함을 쉽게 느낄 수 있게 하지만 메주고리예 마을 일에 관한 한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어한다. 믿을 수 없어 하는 일이란 성모마리아가 아이들에게 나타나 '화평 하라' 그리고 '기도 하라'를 비롯한 몇 가지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다.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모 마리아의 발현의 기적을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엄격한 조사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가 여럿 있다. 그 중 포르투칼의 작은 마을 파티마에서 일어났던 성모의 발현은 1917년 5월 13일부터 그 해 10월 13일 까지 6개월 동안 매월 13일 마다 일어났다. 이 사실은 메스컴을 비롯한 당시의 수많은 기록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야기를 듣고 몰려든 7만 명에 달하는 마을 주민과 성직자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체험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비한 일들에 놀라는 모습이 찍힌 사진들도 그 기록 속에 있다.

세상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고 있다.

종교를 주제로 한 예술은 동서를 막론하고 아주 오래 전 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미술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종교화가 종교적 대립 관계나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배척당하거나 무시당하여 파괴되고 훼손된 시기도 있었다. 비잔틴 미술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배척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을 겪으면서도 예술이 한편으론 끊임없이 종교를 주제로 삼는 대표적 이유는 그 종교의 정신세계를 탐구하고 우리들 삶에 표상으로 삼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작품이란 나와 타자와 사물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소통되는 것들을 상상력이라는 주관화의 과정을 거쳐 얻어지는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그러기에 메주고리에 마을과 파티마 마을을 비롯한 여러 곳의 성모발현에 관한 일들이 신비스럽게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를 찬미하려 한다. 그 당시 메주고리예와 파티마 마을의 어린아이들이 증언한 성모의 메시지에 내포된, 인류를 향한 신의 무한한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를 관통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

사람이 살면서 힘들고 아프면 위로받고 치유 받아야 한다,

사랑으로.

그이가 세상에 왔던 이유다.

2017. 11 이상조

【특집】 역대 기고문 발췌

1990년 전북회화회가 창립되고 1993년 제1회 전북회화회지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40회가 넘는 전시가 기획되고 24권의 회화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전북회화회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기고해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으로 역대 기고문을 다시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미술 인구가 중앙 집중에서 각 지역에까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공모전, 그룹전, 개인전, 화랑기획전, 대학졸업전, 해외교류전 등 많은 전시회가 끊임없이 열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미술의 앞날에 무척 고무적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바꾸어 말하면 오천년의 문화유산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 그림속에 그 민족의 혼이 담겨야 –

(1997년 제5호)

글 **박민평**

십여년전 한국미술 오천년전이라는 명칭으로 해외 각국을 순회하면서 우리의 문화재를 공개한 일이 있었다. 호기찬 눈으로 우리를 재인식 하고 동양문화에 큰 관심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과 다른 체취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오천년 역사에서 우리 현대회화의 현주소를 찾아보면 우리그림을 동양화라고 불리울 때 화가들은 중국의 화첩 등을 의지하며 답습해 왔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조선시대 때부터 배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순수한 한국화라 칭하게 된 것은 우리 한국화의 원조라 불리우는 정선, 단원 등이 우리나라의 풍경, 풍속 등 우리 환경과 정서에 맞는 그림을 그렸으므로 '한국화' 라는 이름으로 새싹이 텄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서양화라고 하는 수채화나 유화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삼십육년간 지배하고 통치할 당시 서양화를 우리나라에 건네주는 교량이 되었고 우리나라 화가 고희동씨가 일본에 유학 서양의 인상주의 화풍을 도입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백년전이니 그 시점이 우리나라 서양화의 첫 걸음인 셈이라고 하겠다. 이렇듯 짧은 우리 회화의 역사에도 반만년의 긴 역사와 전통을 갖는 우리민족의 정기와 감성에 힘입어 오늘날 우리 회화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의 대열에서 우리의 국적을 뚜렷하게 하고 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란 우리 민족의 사상과 얼이 한국적 감성으로 흠뻑 담겨야 세계속에서 그 빛을 발산한다는 말이 아닐까?
그림에는 그 민족의 혼과 체취가 감성과 모양과 색깔로 믹스되어야 한다. 그것이 결여되면 국적없는 그림으로 영원한 미아가 될 것이다.



어느 미술 월간지에 미술평론가 오세권씨가 모 작가에 대해 쓴 논평을 읽고 이에 공감하며 그의 얘기를 서두만 요약해 본다.
「예술의 변화는 사회 변화에 발걸음을 같이 한다. 여기에는 '시대성'이란 확고한 명제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곧 예술이란 그 시대에 나타나는 시대성을 예술적 시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그러기에 예술품은 그 시대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다.

미술 문화에 있어서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성을 바탕으로 하는 조형적 측면, 미학적 측면,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 시대가 무엇을 원하였는가? 하는 관점에서 미술문화의 주류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미술품의 감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미술품이 제작된 그 시대의 사회의 시대성을 어떻게 조형적으로 표현하여 나타내었는가 하는 점을 중요시 하면서 작품을 감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시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작가는 자신의 감성과 재주에만 빠져 그 시대 사회 인식과는 전혀 다른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가령 20세기 후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왕조시대에나 나타내어야 할 작품을 제작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가에게 있어서는 시대변화와 현실감각이 뛰어나야 하겠으며 그 시대변화에 따른 생각의 전환은 중요한 것이다. 기존의 고답적인 생각에만 파묻혀 있지 않고 항상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조형 실험으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이 오늘날 작가들이 지녀야 할 작가정신인 것이다. 결국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떠한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을 항상 연구하여야 하는 것이 작가의 마음 가짐인 것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어느 한계점에 머무르지 말고 주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조형실험을 통해 우리회화를 발전시켜야 하며 감성은 유행처럼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환경과 요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정리해 보자면 구상적이든 비구상적이든 실험적 표현은 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를 수 있으며 그런 부단한 노력에서 작가로서의 기틀을 탄탄하게 하고 민족사관적 주체의식이 뚜렷한 한국적 체온이 감도는 작품으로 승화시켜야 국제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우리의 기상은 드높여질 것이다.

끝으로 우리 전북지역 젊은 화가들이 향토적이고 한국적인 활발한 작품활동으로 세계적인 작가가 되길 기대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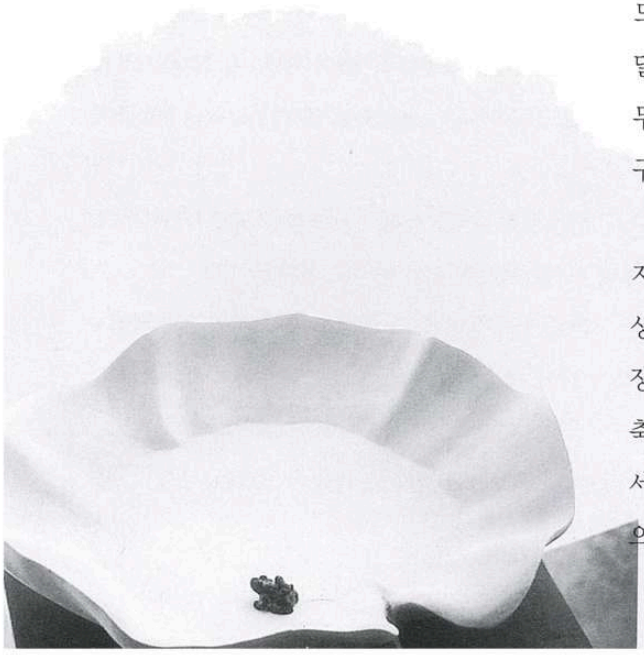
感性

감성 표상의 미학

(1998년 제6호)

글 **황순례** (조각가)





사람은 누구나 감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간다. 가을철 누런 들녘 벼 이삭의 잔잔한 일렁임을 보고 풍요의 포만감과 더불어 결실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는가 하면, 붉은 덩어리가 되어서 서쪽 산허리에 걸쳐저 있는 해를 보면서 벅찬 감동으로 가슴이 메어져 오는 것 같은 감상에 빠지기도 한다. 또 바다 냄새가 물씬 한 고즈넉한 찻집에 앉아 먼 바닷가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들으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아련한 방랑의 향수를 맛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산책길 바람결에 묻어온 들꽃의 소담한 향기나 무심결에 지나치는 사람에게서 배여나온 땀내 젖은 체취가 추억 속의 인물이나 일들을 연상시킴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상의 감상이나 새로운 감정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생활속에서 만지거나 접촉하면서 느끼는 부드럽다, 딱딱하다, 또는 차다, 뜨겁다 등 촉감과 맛으로 느끼는 달다, 쓰다, 짜다, 시다 등 미각의 감각들도 의식,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 속의 대상에 대한 연상작용과 감정을 유발한다는 것을 누구나 경험한다.

지각되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이와 같이 느끼는 바 대로의 변화무상한 다양한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야말로 바로 생명 그 자체의 가장 확실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며 축복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본질적 속성으로서의 감성이 상황조건과 사람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감흥과 감정으로 각색되어서 삶 속에 현재화되어 나타나는 현상 속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감성이라는 질료에 부가되어지는 사람마다의 주관적 의미와 가치의 촉매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아름답게도, 추하게도, 또는 기쁘게도, 슬프게도, 또 즐겁게도, 불쾌하게도, 그리고 또 때로는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느껴지는 것이다.

현실의 삶 속에서 느끼는 이러한 감정들을 추스리고 다듬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작업이 바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말과 글, 소리, 동작, 그림, 조형 등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통해서 때로는 단일 양식, 또는 복합적 혼합방식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이 때 자기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되는 영역에서 능력을 키우고 기법을 익히며 다듬으면서 자기 나름의 수행방법을 습득하여 창작의 일을 계속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예술가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 할 수 있겠다.

❶ **예술의 특정분야를 전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에 관한 예술적 특성과 기법은 물론이고 창작 모티브의 전개과정에 대한 미학적 기초를 확실하게 다져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조각예술의 경우, 점토를 다루고 정리하여 완성하는 과정을 익혀야 하고, 나무의 질감과 돌의 강도와 결을 알아야 한다. 또 철재의 다양한 특성도 익혀서 거기에 맞는 각기 다른 공구의 사용법도 배워야 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학습은 말이나 책보다는 수없이 반복되는 실제경험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이다.

❷ **다른 예술영역의 특성과 기법, 그리고 영역들간**의 상호 연계성 등도 숙지하여 자기 예술 세계와의 비교의 맥락에서 그들의 장·단점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간 감성의 발현이라는 바탕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예술영역들은 미학적 관점과 표현기법의 차이에 의해서 제각기 다른 감성 표상과 표현양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미학적 감성의 해석상 차이와 체계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와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더 넓고 균형잡힌 원숙한 예술적 안목을 갖추도록 꾸준하게 힘쓸 것을 권고하고 싶다.

❸ **인간의 미적 감각이나 감지능력은 우열의 척도**로 차별화할 수 없는 상대성의 특질을 갖는 가치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작품의 가치는 소재 또는 재료의 가치, 규모의 크기나 표현기법의 우열이 아니라, 인간 감성의 질료가 예술가의 주관적 의미 및 가치에 촉매되어서 어떻게 발현되느냐, 즉 얼마나 순수하게 잘 승화되어 나타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문화의 상대성과 개성의 존중이라는 토양 위에서만 예술의 꽃은 제대로 피고, 또 피어야 한다고 믿고 싶다.

객지 생활중 규칙적 산책의 회고담 하나,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산위 고성을 찾아가는 산책 길 옆에 있는 황토와 잡석으로 쌓아올린 담의 틈새에 피어난 보잘 것 없는 풀꽃에서 발견한 경이 속의 아름움에 감격했던 일을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때의 그 감격은 나로 하여금 남의 다른 예술세계에만 매료되어 한없이 방황하던 나 자신을 자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은 나의 생활과 세계 속에서 자주 가슴 뿌듯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평온을 찾게 되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친근하고 익숙한 대상을 가장 편안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배여나오는 자연스런 행복감이 바로 예술의 경지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

한국의 정신이 숨쉬는 미술



(2000년 제8호)

글 **이창규**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한국의 미술은 약 100여 년 전 만해도 주로 중국미술의 영향을 받다가 1910년경부터 시작한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에서는 일본식 미술교육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후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의 영향하에 미국식 교육과 일본식 교육이 혼합하여 진행되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한국식 미술교육이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후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의 여러 미술사조들이 해외 유학파들에 의해서 물밀듯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술이 다양성 속에서도 한국적 정신이 담긴 미술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일부작가들에 의해서 꾸준히 병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국대학들은 학교 구조조정을 비롯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되었던 전공학과들을 유사한 학과끼리 통폐합하고 학부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학부제 운영과 학과 통폐합이 다소 문제도 있지만 세계의 대학추세로 볼 때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오늘날의 미술은 토탈아트(Total Art)로 동·서양화 및 조각, 디자인 들의 요소들이 한 화면에 통합돼 표현되어 지는 경향이 많으므로 동양화든, 서양화든 하나의 전공만으로는 다양한 표현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과목을 폭넓게 수강하고 다양한 기법을 터득하여 보다 새로운 창작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잠시 저의 경험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초·중·고등학교 시절은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중반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절은 서양식교육과 가치가 절대적이었고 종교는 기독교가 거세게 확산되는 때였습니다. 저의 청소년 시절에는 서양의 가치와 종교가 무비판적으로 받아

들여졌고, 그때 형성된 저의 가치관과 역사관, 종교관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지속되었으나 1980년 초 처음으로 유럽과 미국 등을 여행하면서 저의 가치관과 판단력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힘있는 서양인들에 의해서 쓰여진 세계역사와 종교와 가치관들이 한국적 가치관과 역사관과 종교관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그런 변화가 왔다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것은 좀 더 향상된 자각과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력에 의해서 나타난 자연스런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미술대학과 대학원을 다닐 때 방학 때마다 한국미술의 원류와 현장을 찾아서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미술과 문화재의 약 70%를 차지하는 불교미술을 특히 많이 찾아 다녔습니다. 그때 저의 종교는 기독교였기 때문에 여러 불교미술을 볼 때마다 미술사적 양식이나 색채 등 피상적인 부분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문화와 미술을 답사 한 후에는 저의 종교까지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록 불교가 인도와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외래종교이지만 약 1600여 년을 지나면서 한국화 되어, 토착화 되어 나의 정서에도 맞고 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후 불교대학을 졸업한 후 불교에 귀의하면서 불교미술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만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불교에 대한 미술사적 시각과 불교신앙심이 어우러져 불교미술에 대하여 더욱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 우리의 것, 우리의 정신이 담긴 미술로 가야 합니다. 1970~80년대 미국의 뉴욕에서 불시 시작한 속칭 현대미술은 한국에도 상륙하여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 현대미술의 개념은 미술이란 용어로 상징되던 회화나 조각의 개념을 떠나 입체미술, 설치미술, 행위미술, 사진합성, 비디오아트 등 그 범위가 다양해 졌습니다. 그것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가 다양한 진폭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의해 내는 현대사회에 미술만 제자리걸음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현대미술의 난무가 마치 미술의 대종인양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술인양 인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술이란 무엇인가? 예술로서 영속적 가치를 지닌 미술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동의 본질이 결여된 미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연과 인생을 느낄 수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 위안과 감동을 주지 못하는 미술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성찰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술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충격을 주는 센세이셔널리즘에 치중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타당한 조형이론에 의해서 그런 작품들도 제작될 수 있지만 그것은 실험성 일과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모두 대단하게 평가될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서구 미술의 모방적인 것들이 우리의 현대미술인양 둔갑하고 그것들이 모두 각광받는 현상은 재고 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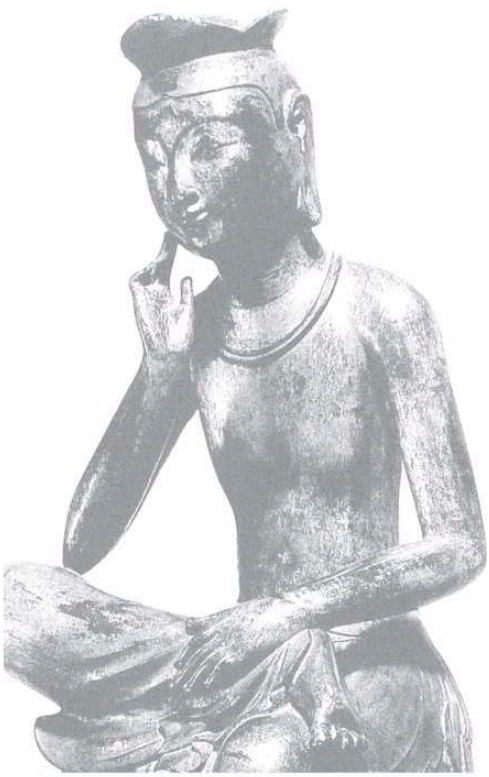
몇 십년동안 혼신을 다하여 시간과 돈과 땀과 눈물을 다 바쳐 진지한 조형작업을 해온 작가들이 마치 구시대의 뒤떨어진 작가처럼 치부되는 이 현실이 일부 젊은 작가들에게 의해 자행되기도 합니다. 과학과 세계적으로 공통화가 되어야 하지만 예술은 보다 더 민족화가 되어야 하지만 예술은 보다 더 민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술은 우리 것 다운, 우리의 정신이 보이는, 우리작가 특유의 기법이 물씬 풍기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미술의 축구가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자생적인 우리의 미술, 서구의 아류가 아닌 우리의 창의적인 미술만이 서구와 겨룰 수 있다. 자생적인 우리의 미술, 서구의 아류가 아닌 우리의 창의적인 미술만이 서구와 겨룰 수 있고 계속 전통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통미술이나 문화는 그것을 창출한 민족이나 국민의 미의식, 기호, 정서, 지혜, 창의력이 집약되 역사적 산물인 동시에 새문화 창조의 밑거림이 되는 것입니다. 전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탈출이란 허망한 허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통으로부터의 탈피는 오직 그것을 철저하게 섭렵하고 내 것으로 소화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을 창출해야 합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위대한 작가와 작품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통을 철두철미하게 소화한 바탕 위에서만 탄생되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역사상 전통의 계승이 착실하게 이루어진 시대에만 위대한 문화적 업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외래미술의 수용은 올바르게만 한다면 자체적인 미술의 발전에 크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자극과 활력과 가능성을 제공하여 주기도 합니다. 외래미술이 전통미술과 조화를 이룰 때에는 우리의 미술이 독자적 특수성과 국제적 보편성을 유지하면서 발전을 거듭하게 하여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미술의 전통과 외래미술의 영향력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전통미술의 독자성만을 고집하고 외래미술의 영향에 압도될 경우에는 독자성과 정체성(正體性)을 잃게 됩니다. 외래의 것 중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올바른 수용을 위해서는 수용자측의 뚜렷한 가치관이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의식이나 정서에 맞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의식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주체적이고 선별적으로 엄격한 검토와 판단을 거쳐 수용되어야 하고, 외형적 수용에 차중하지 않고 그 내면과 이론적 배경을 철저하게 천착하여 수용해야 합니다. 일단 수용한 것은 우리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재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미술은 작가의 생가과 기법이 합쳐져서 승화되어 표현되는 것입니다. 작가의 풍부하고 창의적인 생각 내지는 사상과 철학이 세련되고 뛰어난 기법을 통하여 구현되어야 만 훌륭한 창작품으로 가능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작가들이 손재주를 키우는 일에는 몰두하면서 머리와 가슴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학과 사상의 빈곤 속에 기능주의만 팽배하게 될 때 좋은 작품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철학과 사상의 빈곤 속에 기능주의만 팽배하게 될 때 좋은 작품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작가는 창작에 임함에 있어서 무엇을(주제, 내용), 왜 (제작동기), 어떻게(기법) 그릴 것인지 생각하면서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확립하고 그것을 작품에 투영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찬 생각, 뜨거운 가슴, 뛰어난 솜씨를 갖춘 작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미술전통이 어떠하며, 어떠한 기여를 해 왔는지, 그 특징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그것이 한국 민족의 미의식과는 어떻게 부합되며 현대의 우리가 취해야할 장점은 무엇인지에 관해 충분히 연구하여 한국미술의 창출을 시도할 때 만족할만한 작품이 탄생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구상(具象)이건 비구상(非具象)이건 창작의 세계에서는 어떠한 한가지 경향만을 고집하고 다른 경향을 배척하는 일이 있어서도 곤란합니다.

창작에는 수 없는 많은 길과 방법이 있으며 그 모든 길과 방법이 언제나 다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작품의 재료를 무엇을 쓰든 한국적 미의 창출이 한국의 작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임이자 세계 미술에 기여할 수 있는 첩경이고 이것이 또한 가장 세계적인 한국미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전북회화를 바라보며

(2002년 제10호)

글 **이철량**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새롭게 출발하려 신발 끝을 메는 젊은 후배들의 돌팔매는 가혹한 매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10여 년의 성과를 축하하며 더욱 정진하기를 바란다.

전북회화회가 지난 90년 "중앙시장 사람들"이라는 내용으로 주제 전을 가진 이래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 갔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말이 새삼 실감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북회화회가 이번에 두툼한 책자를 편집하며 원고를 부탁하였는데, 아마 지난 10여 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뭔가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그럴 만도 하다. 10년이면 시쳇말로 강산이 변한다고들 한다. 물론 강산이야 어디 가겠는가 마는 인심은 수시로 바뀌는 것 이여서 10여 년의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필자는 전북회화회와는 남다른 인연이 깊어 그간의 활동을 꾸준히 지켜봐왔던터라 더욱 감회가 남다르다. 이제 전북회화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지역 화단을 지켜오면서 그들 자신들도 많이 성장하였지만 어느면 이제 그들이 또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 것인가 새삼 확인해야하는 시간이 온 것이기도 하다.

지난 80년대는 사실 전북의 지역화단은 요동의 시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보수적이고 전통에 대한 집념과 자부심이 강했던 지역의 전통회화는 더욱 심한 것이였다. 이 시기는 물론 미술에 있어서 만은 아니였을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일어났던 가치관의 변화에서 기인되는 새로운 시대의 준비에 다름아니였다고 생각된다. 어떻든 전북지역의 전통회화는 그 수용의 갈등이 한층 깊어 혼란의 시기였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였다. 이럴 경우 대개는 젊은 새로운 새대들이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기 마련이였다. 이때 이러한 변화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먼저 전북회화회 회원들에게서 생겨났다. 그리고 시작한 전시가 "중앙시장 사람들"이었다. 중앙시장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평범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함축된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은 것이였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우리 자신의 자화상인 것이였다. 중앙시장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자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역미술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 그 이후 수없이 되뇌었던 국제화니 세계화니 하는 말들의 깊은 의미는, 기실은 자신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는 자각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 전북회화회가 제일 먼저 이러한 자각운동을 주도했으며 이후 그들은 "전북의 산하" "교동의 표정" 그리고 "전북의 인물", "광복 50주년" 전 등 테마전을 꾸준히 열어왔다.

이러한 테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전북의 문화유적 기행"전을 열었고 한편으로는 우리미술에 대한 탐구를 위해 세미나를 갖거나 토론회 등을 꾸준히 열어왔다. 지역에서의 그들의 활동은 결코 작지 않다. 전북회화회 회원들의 회화적 성과는 차치하고 그들이 꾸준히 벌인 우리미술에 대한 확인을 위한 일련의 활동은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이런 글에서는 의례 칭찬이나 자화자찬이 먼저 앞서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그들의 그간의 노력이 결코 칭찬만은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일 것이다. 당시 그들 원들의 나이가 결코 많지 않은 20대 후반이거나 30을 넘긴 작가들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들 그림으로는 이제 막 사회에 첫 출발을 시작하는 젊은 나이의 작가들에게서 새로운 변화와 힘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젊고 패기 있는 신세대들이 아니면 새로운 변화와 준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 이였는지도 모른다. 어떻든 이렇게 시작한 이 지역 젊은 신세대들은 그들 스스로의 출발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의욕적이고 왕성하게 활동을 지속시켰다. 아마 어느 지역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형식의 틀에 맞추지 않고 각자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삶터와 이웃을 되돌아보고 그들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며, 이러한 작업이 결국 내일의 새로운 발견에 다다를 수 있다는 믿음과 자각이 있었던 곳은 정말 흔치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노력을 자신들이 작업으로만 보여주지 않고 주변에 더욱 확인시키기 위해 작으나마 회화지를 만들어 배포하며 설득해 왔다는 노력 또한 값진 것이라 할 만하다. 그러기를 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성과만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작품 속에서 읽혀져야 하는 숙제가 남는 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 회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작품전을 가져왔고 작품에 대한 토론회도 있었다. 그간 그들의 이러한 작업은 그들 선배들에게 그들의 주장을 강요했고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당위성을 이해시키는 작업이였다. 그들 젊은 패기에 의한 시대의 변화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선배들에게도 요구했다는 것이다. 전북의 전통미술이 그들의 시대적 욕구대로 변화되기를 걱정하는 동료들에게 암묵적으로 침묵을 강요당했을 것이기도 했을 것이다. 질타와 외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발길질에도 10여 년을 버텨오면서 이제 그들은 나이에서도 이미 중진의 대열에 들어서고 말았다. 어느새 말이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를 먹고 말았다.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아마 전북회화회 회원들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새 밀려오는 후배들에게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모르는 사이에 벌 때처럼 달려드는 후배들이 있었다. 때로는 존경의 눈총으로 어떤 때는 허탈과 좌절을 느끼는 많은 후배들을 의식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회원들이 처음 출발할 때 선배들에게서 좌절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던 그때처럼 이제 한 때의 젊은 후배들이 자신들을 향해 돌을 들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창작의 세계가 무척 지나간 것이라는

것을 염두해 둔다고 하더라도 만약 10여 년 전의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적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돌이다. 어떤 때는 변화만이 능사냐고 위안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 위안은 될지언정 벌 때처럼 달려는 후배들의 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외출할 때 수시로 가라 입는 겉옷처럼 외양만 바꾸었다고 변화라 할 수는 없을 터이므로 아마도 고민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리라. 작품을 크게 전시하고 회화지를 두껍게 만들었다는 것은 변화의 계기를 노린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으로 칭찬 받을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80년대가 요동치는 시대였다고 해서 90년대가 안정된 시기였다는 말은 아니다. 그들이 활동해왔던 지난 10여 년도 따지고 보면 내외적으로 소란한 시기였다. 물론 앞으로 10년도 지난 시기와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가에게 있어서 시대는 항상 극복해야 하고 도전해야 하는 대상이지 편안하고 안락한 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북회화회가 앞으로 10여 년을 또 새롭게 준비하는 도전의 신발을 신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주장이 작품을 통해 설명되기를 소망한다.

전북회화회 회원들이 선배인 나를 평가하고 비판해 왔듯이 나 또한 완곡한 표현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결코 이 정도에서 안심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려 신발 끈을 메는 젊은 후배들의 돌팔매는 가혹한 메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어떻든 이제 글을 끝내야 하므로 예의를 갖추어야 할 것 같다. 그간 10여 년의 성과를 축하하며, 더욱 정진하기를 바란다. 이건 내가 회원들과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진심 어린 인사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

전북회화



2003년 등권 제11호
전 북 회 화 회 발 행

(2003년 제11호)

전북회화회와 전북화단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며...

글 **이철량**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새삼스러운 것이긴 하지마는 전북은 너무나 화려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전반에 걸쳐 자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지만 미술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전통회화의 깊은 역사는 참으로 자랑할 만한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유산을 올바르게 기억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억만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유산을 오늘에 우리가 지켜내고 창조해야 한다는 인식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통은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회화회가 이러한 인식과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북회화회는 그룹 활동의 불모지라 생각될 만큼 매우 조용하기 짝이 없는 환경 속에서 그룹다운 그룹활동을 하여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전북지역의 그룹활동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되며, 많은 후배들에게 자극을 주어 모름지기 전북에 그룹활동의 모태가 되어왔다고 생각됩니다. 정기적인 작품전시는 물론이려니와 시대와 함께 하려는 기획 테마전도 가졌으며 지역 간의 교류를 통해 미술의 소통을 넓힌 노력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작은 것이긴 하지만 책자를 만들어 여러 정보를 나누고 자료를 정리하며 자신들의 작품에 대한 해설도 친절하게 다루어 주었습니다. 후배들에게는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올해는 또 한국화의 인적 확산을 위해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기대회도 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정말 칭찬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이 지역 미술 속에 오래 기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러한 칭찬에 결코 안주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칭찬은 매우 자랑스럽고 때로는 더욱 용기를 키워내는 약초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을 나른하게 하는 기분 좋은 마약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과 결실을 맺어왔던 것만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제 또 다음단계의 과실이 더 높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주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작품에 대한 성과를 더욱 높여 주길 기대합니다.

전북회화회는 작가들이 모여 있는 그룹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큰 노력은 각자의 작품의 성과를 더욱 높이는 일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청년미술의 자랑스러움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전북회화회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청년작가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함이 곧 이 지역 미술의 다양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자랑스러운 미술문화가 이어지고 창조되고 한편으로는 후배들에게 새로운 자극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비상하라. 전북의 젊은 작가들이여!



(2004년 제12호)

글 **곽석손** (군산대학교 예술대학 동양화전공 교수)

오늘의 국제사회 흐름 속에서 문화예술의 역할과 작용을 보면 이젠 한 지역의 감상문화나 표현공감대의 정신적인 향수의 범주를 벗어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하나의 산업으로 전향되어 가는 추세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의 새로운 성향은 그 중요성의 비중에 있어서도 국가 경쟁력의 산업경제에 비유될 만큼 확고해지고 있다.

하나의 단적인 예로 최근 우리 우리 영화예술이 비약적인 발전과 세계적인 주몽현상은 감독이나 배우들의 개인적인 영광과 기쁨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우수성과 민족 정서의 색다른 면모를 알리고 나아가 세계문화산업의 치열한 경재 속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화예술의 국제적인 활약과 발전의 선봉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사회적 척도의 기반이나 학력, 지역적인 갈등의 제약에 전혀 기죽지 않고 열악한 제작조건과 편견까지도 열정과 용기 그리고 희망으로 극복했다는 보도기사를 읽고 참으로 값지고 아름다운 젊음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예술의 자양분이 풍부하고 전통과 현대가 함께 공존하는 전북의 젊은 작가들도 그동안의 오랜 숨고르기를 마치고 우리 미술문화 발전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주도할 수 있는 비상의 날개를 펼쳐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10여개에 달하는 전북지역의 각 대학에서 매년 배출된 청년 작가들의 기량과 양적인 잠재력도 충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각 시에 갖추어진 전시문화공간도 도내의 작가들이 활용하는데 그리 부족하지 않으며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도 아직 희망적이라는 분석에 의해서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북지역 젊은 작가들의 활약을 보면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너무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면이 많았고 그나마도 각 대학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 지역 특유의 넉넉하고 맛깔스런 미술문화의 멋과 멋을 형성하는데 젊은 작가들의 기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며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래서 단순한 지역미술의 파수꾼 역할에서 벗어나 현대미술의

문화산업화 시대에 우리지역의 젊은 작가들도 국제적인 무대를 향하여 자신의 역량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찾아나서는 데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것 같다. 우선 그러한 방안을 찾기 위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자신의 작업에 대한 젊은 작가들의 확고한 신념과 적극적인 참여자세이다. 한 시대의 주역이 되었던 작가들은 그 시대가 그들을 선택 해주었던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이 그 시대의 모든 부정적이고 배태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승리한 댓가의 결과물이었다. 지금같이 문화의 획일화와 예술의 보편화 현상이 전 세계의 미술문화를 하나의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어 가는 현 시점에서 자기작업에 대한 뚜렷한 방향과 의식의 색깔 없이 누군가에게만 의존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죽음의 공간 안에 묻혀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주시하며 굴복하지 않는 자신만의 정신적인 무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현장은 지금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인한 미술시장의 부진, 나아가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현상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나는 그것보다도 우리의 젊은 이들이 타고난 재능과 꿈을 버리고 지나치게 현실주의적인 안목과 근시안적인 타협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적인 타성을 더 큰 위기로 여기고 있다. 미술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어렵고 그러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작가가 되기 위한 작업에 몰두할 수 있겠느냐는 원망 섞인 반문과 회의적인 반응을 교육의 현장에서 나 역시 오래전부터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먼저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작업과 맞서라. 그리고 너의 젊음을 아낌없이 투자하라. 그런 연 후에 비상하기를 기다리라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치면 마치 할일을 다한 듯이 자신의 위치를 점유하려는 태도는 작가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최대의 적이며 불안과 회의를 조장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특히 작가는 많은데 사고 싶은 작품도 많지 않다는 소비자들의 제안도 귀담아 들을 만한 이유가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과 전반적인 인식의 흐름을 종합해 본다면 지금이 바로 이 지역의 젊은 작가들에게는 하나의 좋은 기회요 반전의 계기라고 말할 수 있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제대로 도전한번 해보지 않고 떠나버린 미술현장은 지금 그 어느 작업실에서 힘겨운 작업에 몰두하며 가난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자신과의 싸움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바로 그 젊은 작가들을 주목하고 있으며 그 찬란한 비상을 이미 짐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리지역에서도 이제 국제적인 비젼을 가지고 젊은 작가들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태껏 산업체만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유락시설 확충에만 급급했던 전 근대적인 시각에서 빨리 벗어나 살아있는 정신문화 산업의 주역인 이 지역 젊은 작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연구를 지역발전 산업의 차원에서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지역의 문화담당 기관과 인사, 선배 작가 그리고 각 미술대학의 교수들과 의식 있는 기업들이 이 지역의 젊은 작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새롭게 고민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관심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 지역의 젊은 작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 다시 자신들의 후배들에게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비상의 발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한 단체나 기관 누구 한 개인의 투자와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야 할 우리의 몫이기도 하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어 미술정책과 실천이 병행됨으로써 젊은 작가들이 힘찬 날개 짓으로 넓은 세상을 향해 비상하기를 기대한다. ▣

지역으로부터 [1]

글 **채 영** (공간시은 운영자)

관객의 시선이 그림에 닿는 것은 작가의 조형세계 안으로 관객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 안에서 관객과 회화 사이에, 그리고 관객과 작가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다. 회화에 대한 각자의 태도들이 평면 위에서 만나 서로 간에 조응이 이루어질 때 이 관계가 형성된다. 서로 입장들이 결정되고 유보되는 과정 속에서 비평의 지점 역시 생성되거나 소멸된다. 물론, 당연하게도, 작업에 대한 이해의 깊이는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이를 배려한다고 해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작가는 미리 가늠하지도 못할 상대의 미적판단 수준에 맞춰 작업을 하지 않으며 관객 역시 작가의 조형 능력을 미리 판단하고 전시장에 들어서지 않는다.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태도의 문제다.

지역의 전시는 종종 '감상과 해석은 관객의 몫'이라는 '열린 해석'의 늪에서 허우적대다가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한 채 끝이 난다. 그렇다고 지역의 전시가 랑시에르의 말처럼 '해방된 관객'으로 지역의 관객을 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현대미술과 이해하지 못하는 관객으로 나누고 그 태도의 차이와 그에 따른 한계를 체감할 뿐이다. 물론 이러한 차이가 지방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외 미술관 풍경에는 '예술의 대중화'가 순수예술을 휘젓고 다니는 가운데 셀카봉으로 무장한 인스타그래머들이 몰리는 전시와 평일 한 자릿수의 관객이 찾는 개념미술 혹은 설치미술 같은 전시들이 공존한다. 관객과 작가 사이의 벌어진 차이는 중앙과 지방 모두의 문제이지만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있을 뿐이다.

다만 지방의 미술인들이 이 차이를 지역 내에서 미술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미리 치부함과 동시에, 전문인력 부족과 미술시장의 협소함이나 상대적/절대적으로 적은 관객층을 이유로 이를 영원히 풀 수 없다는 태도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의 작업들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걸까. 오늘날 한국현대회화는 현실을 외면하고 형식만을 탐구했던 과거의 흐름들을 비판하고 전유하면서

1) 지역으로부터라는 제목의 첫 번째 글을 2017년 이봉미 기획으로 지역청년 예술가 교류프로젝트의 결과 보고전 성격의 〈발화지점〉 전시에 썼다. 지난 글은 서울을 중심으로 중앙과 주변의 미술이 나누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지역의 울타리를 '이미' 넘나들 수 있게 된 지금의 환경을 이용하자는 내용이었다. 이번 글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전시공간 운영자로서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느낀 내용을 바탕으로, 혹시 전북의 미술이 지역의 한계나 '지역성'의 견고한 울타리와 무관하게 단순히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함께 의심해 보고자 한다.

여기까지 왔다. 작품의 안과 밖에서 이데올로기적 시스템들과 관습적인 제도들에 도전하는 예술의 형식들은 외면 받고 오로지 외형 묘사 기술과 내면 탐구의 감각들로만 채운 평면들이 전시장에 있다면, 지역미술의 위기 혹은 부재는 미술 내부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 30여 년간 미술잡지의 대담이나 강연, 라운드 테이블 등에서 지적된 지방 미술의 위기와 부재에 대한 문제점들은 지나치게 반복적이다. 이 반복은 전문인력의 부재, 인프라 부족, 미술시장의 협소함이나 중앙과의 차이라는 명확하게 지적되어온 문제들을 스스로가 해결한 능력이 없음을 반증하는 일이 된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행정가나 정치인 혹은 문화 관련 기획자의 입장이 되어 복지와 공공 지원을 해답처럼 요구하는 일은 또한 자본과 관력에 지나치게 밀접한 '공모자'에 대한 의심을 미술계 스스로가 만드는 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물론 이러한 노력 또한 필요한 것이겠으나 중요한 것은 오히려 앞서 지적한 이 한계 그리고 차이를 넘어서는 노력이 내부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일시적일 뿐인 외부의 도움 없이 지역의 미술은 이 차이를 좁힐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지역 미술이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지역미술이란 있는가. 이제는 지겹고 따분한 이 질문의 답은 그럼에도 언제나 유보된다. 물론 전북 지역 작가들에게서 공통인 특정 특정한 화풍을 찾을 수 있고 형식이 뚜렷하게 존재하거나, 혹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 정체성을 각자의 작업에서 찾을 수 있다면 미술의 지역적 특성을 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지역의 미술에 있어 고유한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역의 미술가들이 추구하는 공통적인 지향점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다수가 동의할만한 시각예술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면 유의미한 논의들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논의들이 지속성을 갖는 일은 어려워 보인다. 지역에 대한 리서치와 아카이빙, 혹은 커뮤니티 아트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수의 작가가 공통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작업의 중심에 놓거나 지역의 특성들을 고집하여 작업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을 대표한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지역 내외에서 인정받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몇몇 지역-작가들을 떠올려 본다고 한들, 이들의 작품들을 공통의 지역적 특성으로 설명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지역성'에 대한 논의는 우리를 불분명한 실체 어디쯤에서 헤매게 만들곤 한다. 어쩌면 우리는 이 '지역'의 철지난 이데올로기의 뜬구름 속에서 눈먼 채 허우적대다 휘두른 팔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미술의 지역성'은 '지역의 한계'와 다른 것이지만 이 둘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 얽혀 있는 곳에는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울타리'가 있다. 이 울타리는 지역적 특성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의 미술가들과 지역의 정치와 행정, 복지와 지원, 각종 공모 사업 사이에 벌어지는 이해관계가 있다. 과거에 이 울타리는 높을 뿐 아니라 이 좁은 지역 내에서 작동하는 학연과 지연의 끈끈함 때문에

넘을/넘어올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지역성은 언제든 우리가 떨쳐낼 수 있으며 넘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지역성을 전유하거나 탐구하며, 비틀어대거나 비판하는 작업도 가능하다. 이를 낡은 것으로 치부할 수 있고 이후의 새로운 논의들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중앙과 구분되는 지방의 이분법적 한계를 재맥락화하여 작업의 주제로 삼을 수 있다. 이 견고한 울타리는 종종 미술의 내부보다 외부에서 작동한다. 그곳에서 관객과 회화 사이의 관계를 막는다. 지역의 관객은 미술의 지역적 특성을 보기 위해 전시장에 찾지 않는다. 이미 관객은 전지구화 시대, 멀티미디어 시대에 익숙해져 있다.[2] 물론 동시대 회화작품이 항상 새로운 것이어야 하거나 중앙의 흐름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의 감각들이 각자의 조형언어로 재현되어야 한다. 시각이미지는 현실세계를 반영한다. 새로운 매체와 방법론이 전통적인 회화를 대체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변화에 대하여 오늘의 회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지역의 미술에서도 보여야한다.

반복되어온 지역 미술의 문제점에 대한 임시적인 처방들로 전시공간을 만들고 아트페어를 개최하고 전문인력을 초대하고 국제 미술전을 개최하고 각종 지원 사업들이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관객과 작품이 관계들을 맺어갈 때 가능하다. 그래야 관객이 늘고 미술시장과 인프라가 생겨날 것이다. 관객이 순수미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전시장에 있는 작품들을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관객은 사실적인 재현과 서사의 기능은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인상과 내면의 표현은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오감을 자극시키는 새로운 미디어들을 통해 이미 더 효과적으로 접해 오고 있다. 멀티미디어 시대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지역의 회화가 여전히 사실적/환영적 재현의 기술적 측면이나 풍경의 인상과 내면의 표현에만 치우쳐 전시장에서 일차원적으로 반복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당연히 재현과 표현은 문제가 아니다. 이 재현과 표현을 동시대회화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으면서 자꾸 지역의 한계와 지역성의 울타리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다.

회화의 위기와 종말 그리고 부활까지, 평면을 둘러싼 통찰력 있는 논의들이 한 세기를 훌쩍 넘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술의 왕좌를 회화가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의 굳건한 위상 때문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며 그 지평을 넓힌 덕분이다. 지역의 회화가 포스트-매체를 의식하여 변화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 동시대 회화는 포스트-매체를 만든 시대에 반응하고 있고 또한 반응해야 한다. 지역의 회화가 지역의 한계와 지역적 특성 사이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동시대적 가치와 의미들로부터 멀어진다면 견고한 울타리는 또다시 높아질 뿐이다. 누가 그 울타리를 두려워하는가. 울타리를 넘으려하는 자인가 아니면 울타리 안에 머무르는 자인가.

2) 종종 지역 관객의 수준이 낮음을 논하지만, 전시관람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지역 관객들의 미술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편이다. 다만 그 수가 중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뿐이다. 이미 관객들은 해외 관광을 통해서, 블록버스터 기획전을 통해서 명화나 새로운 매체의 전시에 노출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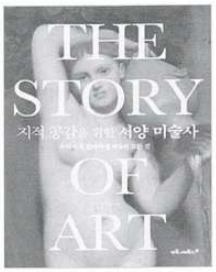
읽을 만한 책



게이트웨이 미술사 미술의 요소와 원리, 매체, 역사, 주제 | 미술로 들어가는 4개의 문
〈데브라 J. 드위트 , 랠프 M. 라만, M. 캐스린 실즈 지음 | 조주연, 남선우, 성지은, 김영범 옮김 / 이봄〉

만일 당신이 미술에 대해 알고 싶다면,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도구는 다름 아닌 책이다. 그러나 책을 펼치기만 하면 어려워 보이는 미술의 세계가 당장 당신의 눈앞으로 다가설 것만 같다. 그런데,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무려 100년 전에도 미술을 알고 싶던 독자는 존재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미술 세계로의 입문은 서양 어느 지방의 고대 벽화에서 시작하는 것이 정설처럼 굳어져 있으며 미술의 세계란 곧 중세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 미술사에 국한돼 있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미술을 바라보라. 바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이 책은 고대부터 시작해 현대에 이르는, 시대사적으로 미술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완전하게 탈피했다. 따라서 미술의 요소와 원리, 매체, 역사, 주제 등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미술을 보는 방식의 주도권을 온전히 독자에게 쥐어준다.

지적 공감을 위한 서양 미술사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미술의 모든 것
〈박홍순 지음 | 마로니에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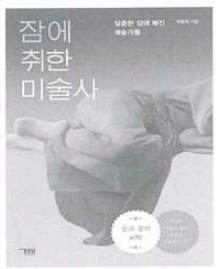
좋은 작품과 그림을 만나도 그들이 건네는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없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다. 『지적 공감을 위한 서양 미술사』는 좋은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인문학과 철학을 넘나들며 미술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킨다. 때로는 많은 것이 함축된 묵직한 이야기를, 때로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잠자고 있던 우리의 사유를 깨워 수준 높은 미술 감상으로 이끈다. 이 책은 한때의 유행처럼 얄팍하고 가볍게 소비되는 책이 아니라 두고두고 곱씹고 사유하면서 시시때때로 꺼내보는, 책장 한편에 오래도록 자리 잡을 든든한 미술 인문 교양서이다. 평소 미술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과 갈증을 느껴온 독자라면 이 책이 만족스럽게 채워줄 것이다.



미술사 아는 척하기 한 권으로 끝내는 미술사 다이제스트
〈리처드 오스본 지음 | 신성림 옮김 | 나탈리 터너 그림 | 팬덤북스〉

쉽고 재미있는 미술의 이해!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에서 포스트모더니즘 회화까지 미술의 역사와 이론, 미술가들을 쉽고 재미있게 다룬 『미술사 아는 척하기』. 미술의 시작에서 고대 그리스, 르네상스, 미술의 발명, 산업화 시대, 모던 미술을 거쳐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아우르며 해당 시기와 미술 이론에 맞는 미술가와 이론가, 철학자들은 물론 구체적인 미술 작품들을 소개하는 책이다. 설득력 있고 유용한 방식으로 미술 이론에 접근해 초보자가 미술의 개념을 둘러싼 갖가지 논의를 살펴보게 하는 이 책은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 일반인을 위한 입문서가 되어준다.

잠에 취한 미술사 달콤한 잠에 빠진 예술가들
〈백종옥 지음 | 미술문화〉



인간의 삶에서 잠이 차지하는 중요성만큼이나 예술에서도 잠은 빈번하게 표현되어왔다. 신화, 종교, 문학, 예술 등에서 잠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는데, 『잠에 취한 미술사』에서 저자는 미술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잠과 관련된 서양의 미술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잠과 예술의 의미 있는 역할이 겹쳐지는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저자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잠과 관련된 작품들을 신화, 꿈, 일상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분류해 살펴본다. 1부에서는 서양 문화의 근간인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잠에 대한 이야기와 그에 관한 그림들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잠자며 겪은 꿈 이야기에 주목한 작품들을 소개한다. 3부에서는 일상의 모습에서 분류될 만한 작품들을 다양하게 보여주는데, 마지막 장에서는 현대미술에서 계속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잠'에 대한 관심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아주 사적인 현대미술 아티스트 10인과의 친밀한 대화
〈캘빈 톰킨스 지음 | 김세진, 손희경 옮김 | 아트북스〉

작품만큼 흥미로운 아티스트의 삶을 통해 현대미술을 읽는다!
1960년 《뉴요커》의 필진으로 합류한 이후 40년 이상 미술평론가로 동시대 미술과 예술가에 관한 예리한 통찰을 담은 글들을 통해 대중에게 현대미술을 소개해온 캘빈 톰킨스. 『아주 사적인 현대 미술』은 그가 《뉴요커》에 기고해 온 글 가운데 가장 흥미롭고 뛰어난 현대미술 아티스트에 관한 글들을 선별하여 담은 책이다. 책에 수록된 마지막 글이 쓰인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열 명의 아티스트들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으며 화제성으로나 작품의 가격으로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아티스트가 되고자 결심한 계기부터 아티스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작품의 발전 상황을 특유의 쿨하고 유머감각 넘치는 글로 담아낸 짧은 전기들을 통해 언뜻 이해하기 어려웠던 현대미술에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



전북회화

2017년 통권 제24호 전북회화회

발행.편집인 | 방정업
편집위원 | 방정업, 박성수
전북회화 | 2017년 통권 24호
발 행 일 | 2017. 12. 10
대표연락처 | [redacted]
기획, 제작 | 프린팅메인 T. 287-9[redacted]

2017

전북 회화

http://cafe.daum.net/artjb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